

05 사람 사람 남인숙 작가, 그녀를 읽다 | 06~08 시, 소설 당선작 | 09 학술 빌딩 속 실내공기에 갇혀 있다, 발당중후군 | 10 문화 소개팅도 셀프로 하는 시대 '소셜데이팅' | 11 독자기획

## 드디어 공개된 대학 구조개혁 평가지표

대학간의 소모적 지표경쟁을 탈피할 수 있을지는 아직 의문스러워

〈1단계 평가: 11개 지표 60점〉

항목	평가 지표
교육 여건 (20)	전임교원 확보율(8)
	교사 확보율(7)
	교육비 환원율(5)
학사 관리 (15)	수업 관리(9)
	학생 평가(6)
학생 지원 (15)	학생 학습역량 지원(5)
	진로 및 심리 상담 지원(5)
	장학금 지원(5)
교육 성과 (10)	학생 충원율(5)
	졸업생 취업률(3)
	교육수요자 만족도 관리(2)

〈2단계 평가: 6개 지표 40점〉

항목	평가 지표
중장기 발전 계획 (10)	중장기 발전계획의 적절성(5)
	중장기 발전계획과 학부(과) 및 정원 조정의 연계성(5)
교육 과정 (20)	핵심역량 제고를 위한 교양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적절성(5)
	전공능력 배양을 위한 전공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적절성(5)
	교육과정 및 강의 개선을 위한 지속적 노력(10)
특성화 (10)	특성화 계획의 수립, 추진, 성과(10)

국가장학금 II 유형 미지급, 학자금 대출 일부 제한 ▲E등급 정원 대폭 감축,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국가장학금 I·II 유형 미지급, 학자금 대출 전면 제한, 자발적 퇴출 유도

도 했다. 본교는 어떻게 준비중인가 구조개혁추진위원회(이하 구조위)를 발족해 구조개혁 평가에 대비하고 있는 본교는 이번 평가를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 우선 본교는 1단계 평가와 2단계 평가를 모두 준비 중이다. 1단계 정량평가가 있어서 절대평가 지표인 교사확보율의 경우 본교는 종합관을 준공하고 있기에 이를 평가에 반영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 중이다. 또한 구조위는 2단계 정성평가를 중점적으로 준비해 평가 방문단이 오는 시점까지 모든 평가 요소가 개선되도록 노력중이다. 장영우(교수 지원팀) 팀장은 "학생생활상담실, 교육개발지원팀 등의 기구를 개편하고 관련 규정의 개정 작업도 병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과정에 대해서 장영우 팀장은 "현재 본교는 교양교육 시행 주체가 나뉘어있다. 이를 통합해 우리 대학의 인재상과 부합하는 교양교육을 개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단계 평가 항목 중 하나인 특성화는 어떻게 준비중인가? 장영우 팀장은 "지난 수도권 특성화 사업

(CK-II) 준비 당시의 계획을 확대·발전할 것"이라며 "현재 외부 컨설팅의 의뢰해 완성 시점의 특성화 방안을 논의 중이다"고 설명했다.

### 평가지표 발표 됐지만 논란은 계속돼

대학 구조개혁 평가지표 발표로 대학별 평가 준비에 바자가 가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여전히 구조개혁 평가에 대한 쟁점이 불거지고 있다. 바로 교육부가 제시한 평가지표가 실질적으로는 기존의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점이다. 또한 '사립대의 법인 지표 및 등록금 완화' 지표가 빠진 것을 두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2차 공청회 당시 11월 말에 편람을 완성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대학들의 의견을 반영한 최종판 발표는 12월로 연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재원기자 1236047@hansung.ac.kr

## “성공취업! 잡(job)·일(work)” 성황리에 마쳐



지난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성공취업! 잡(job)·일(work)" 취업특강 II가 진행되었다. 국내외 인턴십 특강과 성공취업특강, 취업이벤트, 취업토크콘서트 등 DL의 수용인원인 약 220명을 넘어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학생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11월 12일에 진행된 성공취업특강에서는 국내 최연소취업전문가인 박장호 씨가 저스펙으로도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에 합격할 수 있었던 노하우에 대해 강의했다. 한림대를 3.29학점으로 졸업했으며 토익점수가 235점인 그는 공기업과 롯데계열사, 독일계 기업 등에 최종합격해 근무한 바 있다. 박 장호 씨는 자기소개서 작성 시 소재목을 작성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신문 헤드라인과 같이 소재목도 돋보여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신문을 읽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씨는 취업서류를 100개나 작성했다. 실패에도 굴하지 않고 도전해 결국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는 "될 때까지 해보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강의를 마쳤다.

또한 13일에 진행된 해외 인턴십 특강은 ICCEUSA, KOTRA 등 본교 해외인턴십 프로그램에 대해

조종집(취업·창업지원팀) 차장이 강의했다. 조종집 차장은 학점교류와 장학금 지급 등 본교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해외인턴십에 관한 혜택을 강조했다. 해외인턴십 특강은 많은 학생들의 관심으로 인해 질의응답 시간이 길어지는 등 열의가 대단했다.

"성공취업! 잡(job)·일(work)" 프로그램은 진행되는 동안 약 220명이 넘는 학생들이 참여해 본교의 뜨거운 감자였다. IBK 기업은행에서 후원해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노트북, 정장, 프린터 등 경품 또한 다채로워 학생들의 반응을 이끌어 냈다.

오혜진 기자  
dhgpw50424@hansung.ac.kr

### 배일 벗은 대학 구조개혁 평가지표

지난 11월 11일 한성대학교에서 <대학 구조개혁 평가방안 마련을 위한 2차 공청회>가 진행되었다. 이는 지난 9월 30일 1차 공청회에서 발표한 평가 지표안보다 구체화된 평가방식과 평가지표의 내용 및 배정을 공개하는 자리였다. 이번에 공개한 대학 구조개혁 평가지표는 1차 공청회 이후 대학들의 '지나치게 많고 세부적이다', '대학의 특성 및 대학의 노력을 반영해야 한다' 등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그 결과 평가지표 수는 1차 공청회 당시 11개 영역, 24개 항목, 38개 지표였으나 1단계 평가에서 4개 항목 11개 지표, 2단계 평가에서 3개 항목 6개 지표로 대폭 줄어들었다.

### 단계적 평가로 대학별 등급 부여해

모든 대학은 우선 1단계 평가를 거

치게 된다. 1단계 평가결과에 따라 그룹1과 그룹2로 구분하고 그룹1은 또 다시 A, B, C 등급으로 구분한다. 하위권 대학인 그룹2 경우 2단계에서 중장기발전계획을 평가해 최종 점수에 따라 D, E 등급을 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구분한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17학년도 입학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또한 평가결과는 재정지원사업과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과도 연계된다. 상위 그룹인 그룹1의 경우 향후 대입 정원 감축계획에 따라 정원 감축의 평균치만 줄이면 되지만, 하위 그룹인 그룹2의 경우 대대적인 정원 감축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등급별 구조개혁 조치는 다음과 같다. ▲A등급 정원 자율 감축,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 ▲B등급 정원 일부 감축,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 ▲C등급 정원 평균 수준 감축,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 ▲D등급 정원 평균 이상 감축,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제한,

### 정량평가에 절대평가 방식을 도입해

이번 평가안의 경우 상대평가 중심의 기존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와 달리 정량평가에 절대평가방식을 도입했다는 점을 특징으로 삼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대학 간의 소모적인 무한 경쟁을 탈피하고, 대학의 설립 주제와 또한 평가결과는 재정지원사업과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과도 연계된다. 상위 그룹인 그룹1의 경우 향후 대입 정원 감축계획에 따라 정원 감축의 평균치만 줄이면 되지만, 하위 그룹인 그룹2의 경우 대대적인 정원 감축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 총학생회·예술대 학생회 투표율 39%대에 그쳐 당선 무효 돼

### 두 선본을 제외한 공개기구·단과대 학생회는 모두 당선

지난 11월 18일·19일 양일간 ▲총학생회 ▲공개기구 ▲단과대 학생회 선거가 치러졌다. 모든 선거는 단선으로 진행되었고 총대의원회 '새로고침' 선거운동본부의 최지현(컴공3) 정후보·곽은지(정보3) 부후보, 학생복지위원회 'HUG' 선거운동본부의 장승훈(영어영문3) 정후보·박송희(정시2) 부후보, 졸업준비위원회 '상상이상' 선거운동본부의 임병국(경영2) 정후보·김한솔(정시2) 부후보, 인문대학 학생회 '4U' 선거운동본부 김재현(영어영문2) 정후보·정다솜(지식정보3) 부후보, 공과대학 학생회 '공감' 선거운동본부 임채승(기계4) 정후보·위준범(산업경영3) 부후보가 당선됐다.

단위	선거운동본부	투표율	득표율	비고
총학생회	WIT	39.91%	39.91%	당선무효
총대의원회	새로고침	80.41%	73.04%	당선
학생복지위원회	HUG	81.11%	86.21%	당선
졸업준비위원회	상상이상	80.41%	90.43%	당선
인문대학 학생회	4U	54.35%	86.65%	당선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	-	-	-
예술대학 학생회	예목들	39.27%	-	당선무효
공과대학 학생회	공감	53.55%	84.41%	당선

영2) 부후보와 예술대학 학생회 '예목들' 선거운동본부 유예빈(의류패션2) 정후보·신혜수(인테리어2) 부후보의 경우 투표율이 각각 39.91%, 39.27%에 그쳐 선거가 부결됐다. 한편, 이번 선거에는 지난해 제공했던 선거유인이 제공되지 않았다.

### 때이닝 후보자 자격논란 일기도

유세기간이었던 11월 14일 총학생회 WIT 선거운동본부의 사과문이

게재된 바 있다. 그 이유는 후보자 등록 이전 추천인 서명을 받은 당시 선거운동본부장이 임의로 대리 서명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이외에도 선거시행 조항을 어겨 중선관위로부터 경고2회 주의1회 조치 및 총학생회 'WIT' 선거운동본부의 선거운동본부 자격박탈조치를 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는 징계공고에 '후보자 등록을 위한 추천인 명부를 받던 중 후보자가 아닌 타인이 총학

생회 후보자의 추천인 명부를 받음'이라고 명시했다. 경제학과 학생회는 대리서명이 1회가 아닌 수차례였다며 이는 후보자 등록 절차에서의 부정기기에 후보자 박탈을 중선관위에 요구했다. 이에 원정효(산업경영4) 중선관위원장은 "투표기간 중 중선관위 소집이 어려웠기 때문에 개표직전 논의하기로 했다"며 "개표 직전 논의 결과 이미 많은 학생들이 투표권을 행사한 가운데 이를 무시할 수 없다고 판단

하여 후보자 박탈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투표기간 도중 이러한 후보자 자격박탈 논란이 일었지만, 총학생회 투표율이 39.91%에 그쳐 당선 무효가 됨으로써 논란은 일단락되었다.

### 결국 3월 보궐선거로 넘어가

총학생회와 예술대 학생회 선거가 부결됨에 따라 선거시행세칙 제48조 1항에 의거 중선관위와 예술대 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선거를 공고했다. 이에 예술대학 학생회 '예목들' 선거운동본부 유예빈(의류패션2) 정후보·신혜수(인테리어2) 부후보가 등록을 마친 상태이다. 하지만 현재 총학생회의 경우 등록한 후보자가 없어 내년 3월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한재원기자 1236047@hansung.ac.kr

## '제4회 독서경진대회' 11월 12일 학술정보관에서 열려

제4회 독서경진대회가 지난 11월 12일에 학술정보관 자유열람실에서 열렸다. 독서경진대회의 출제 범위는 '한성 광장도서 69선' 중 지정도서 4선이다. 이번 대회의 지정 도서는 '위대한 유산(찰스 디킨스)', 「고민하는 힘(강상중)」, 「희망의 밤상(제인구달)」, 「통섭(에드워드 윌슨)」이며 문제는 주관식과 객관식 포함 총 44문제가 출제되었다.

수상자는 ▲대상 송하나(무역09), ▲최우수상 박다운(지식정보12), ▲우수상 김성택(정보시스템공학 11), 오연주(경영 10), ▲장려상 김지선(지식정보 08), 홍주연(한국

어문학 12), 송윤호(지식정보 11) 학생이었다. 대상은 50만 원, 최우수상은 30만 원, 우수상은 20만 원, 장려상은 1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되었다. 정미영(학술정보팀) 차장은 "학생들의 책 읽는 시간이 많이 줄었다. 베스트셀러는 많이 읽지만 수많은 명저들이 있는 인문학이나 과학 분야의 독서량은 많지 않다. 학생들이 이런 명저들을 많이 읽었으면 한다"며 "독서에 대한 강한 동기부여를 제공하기 위해 독서경진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박경호 수습기자  
kyoung516@hansung.ac.kr

# 현장실습 이수 학생 수, 32개 대학 중 32위 기록해

### (2014 서울권 대학 현장실습 현황)

순위	학교	현장실습 이수 학생수	현장실습 참여 기업체 수
1	성균관대학교	1039	513
2	한양대학교	1016	735
3	동국대학교	972	581
4	국민대학교	895	534
5	중앙대학교	886	557
6	경희대학교	716	420
7	고려대학교	534	330
8	홍익대학교	518	296
9	이화여자대학교	515	426
10	서울여자대학교	477	393
11	송실대학교	404	352
12	광운대학교	357	235
13	서울과학기술대학교	351	248
14	세종대학교	320	150
15	숙명여자대학교	271	229
16	한국외국어대학교	224	118
17	서강대학교	213	179
18	성신여자대학교	172	159
19	건국대학교	130	105
20	명지대학교	129	78
21	연세대학교	122	42
22	상명대학교	118	104
23	성공회대학교	113	72
24	서울대학교	108	38
25	서울시립대학교	74	68
26	서경대학교	64	29
27	동덕여자대학교	59	98
28	한국성서대학교	43	23
29	덕성여자대학교	39	30
30	그리스도대학교	37	31
31	삼육대학교	18	13
32	한성대학교	16	14

▲ 2014 대학알리미에 공시되어 있는 자료(기준년도 2013)를 근거로 함. 현장실습 이수 학생수를 대상으로 순위 매김.

2014년 대학알리미 정보공시에 의하면 본교의 현장실습 이수 학생 수가 서울 내 4년제 32개 대학 중 32위를 기록했다. 현장실습이란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국내의 산업현장에서 학생의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학점을 부여하는 대학의 교육과정을 의미한다. 즉, 학교와 연계된 기업에서 4주(160시간) 이상 일을 하되 학점을 인정받는 활동을 의미한다. 현장실습은 현장 적응력과 창의력을 지닌 인재 양성을 위한 과정으로 학생들이 직접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인턴십이 현장실습에 속한다.

교내에서 운영하는 국내인턴십 프로그램은 ▲강소기업체협프로그램 ▲자체인턴십 ▲청년인턴제로 이루어져 있다. 강소기업체협프로그램(이하 '강소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인턴제로 2013년 기존의 청년직장체협프로그램(이하 '청년직장')에서 전환된 프로그램이다. 자체인턴십은 학교가 직접 기업을 매칭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며 청년인턴제는 졸업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위탁기관을 통해 기업을 매칭한다.

2014 대학알리미 정보공시(기준년도 2013)에 의하면 2013년 본교의 현장실습 이수 학생 수가 16명으로 서울 내 4년제 32개 대학 중 32위를 기록했다. 2011년 현장실습 이수 학생

수는 47명이며, 2012년 현장실습 이수 학생 수는 41명, 2013년 현장실습 이수 학생 수는 16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현장실습 이수 학생 수가 서울 내 32개 4년제 대학 중 꼴찌를 기록한 원인 중 하나로 부실한 국내인턴십 운영을 꼽을 수 있다. 2012년에도 현장실습 이수 학생 수 41명, 참여기업체 수 20곳으로 국내인턴십을 진행했지만 2013년 대학알리미 현장실습 평가 지표(기준년도 2012)에서 본교를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황정혜(취업·창업지원팀) 팀원은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 국내인턴십 담당자가 공석으로, 타 담당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진행했다"며 "국내인턴십을 진행했음에도 2013 현장실습 평가지표(기준년도 2012)에 들어가지 않았던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답했다.

현장실습 이수 학생 수가 저조한 두 번째 원인은 고용노동부의 정책이 '청년직장'에서 '강소기업'으로 변경되어 모집학생의 정원이 줄어든 것 때문이다. 황정혜(취업·창업지원팀) 팀원은 "청년직장이 '강소기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주당 노동시간이 40시간에서 20시간으로 감소했다. 이에 기업들은 학생들의 하루 당 노동시간이 줄어들어 참여를 취소하거나 모집인원을 축소시켰다"고 설명했다. 2012년의 '청년직장' 이수 학생 수는 31명인데 반해 2013년의 '강소기업' 이수 학생

수는 12명으로 크게 감소한 것이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인턴십 프로그램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모든 학생이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각 기업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최종적으로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학교와 연계된 기업은 약 30곳이지만 학생들이 기업의 요구 조건에 부합하여 실제 인턴 생활을 하는 기업체 수는 14곳이다. 한 기업에 여러 명의 학생이 합격할 경우에도 참여 기업체 수는 한 곳으로 계산한다. 대학알리미 공시자료에는 참여 기업체 수가 14곳으로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부터 황정혜 팀원이 국내인턴십 담당자로 새롭게 배치됨에 따라 국내인턴십이 다시 활성화되고 있다. 2014년 현장실습 이수 학생 수는 33명 참여기업체수는 15곳으로 2013년도에 비해 증가했다. 또한 '성공취업' 잡 일을 통해 국내인턴십 특강을 진행하는 등 학생들에게 국내인턴십 프로그램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장실습은 취업률과도 관계가 있다. 현장실습이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장실습을 통해 경쟁력을 갖춰 취업에 보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장실습 이수학생수 증가를 위해서는 학교의 지원과 학생의 참여가 필요하다.

노유진 기자 ly32108@hansung.ac.kr

# '2014년도 교직원과정 포트폴리오 경진대회' 성황리에 마쳐



'2014년도 교직원과정 포트폴리오 경진대회' 심사가 지난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 미래관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이 대회의 목적은 학생들이 스스로 포트폴리오를 작성하여 매 학기 지도교수와 면담 시 활용함으로써 자율적인 학생 관리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수상자는 ▲최우수상 김인지(무용 12), ▲우수상 조다은(무용 12), 이지원(한국어문학 13), ▲장려상 김영혜(한국어문학 12), 김의정(무용 12), 이강현(경영 10) 학생이었다.

박경호 수습기자 kyoung516@hansung.ac.kr

# '한국어과정 2014년 가을학기 수료식' 11월 12일 DLC에서 열려



'한성대학교 한국어과정 2014년 가을학기 수료식'이 지난 11월 12일 DLC에서 열렸다. 수료증과 성적표는 별사(5급)가 학생대표로 받았다. 수상자는 ▲성적우수상 손우정(1급), 단독제(2급), 황민(4급), 사정정(5급)이었으며, ▲성실상 권도 차카(1급), 사카모토 마오(2급), 전유갑(3급), 진사문(5급)학생이었다.

이번 수료식에서 외국인 학생들이 기차단 발표, 뉴스쇼, 영화 소개, 풍토, 여행 상품 소개, 연극, 시 낭송과 상륙극 등을 발표했다.

박경호 수습기자 kyoung516@hansung.ac.kr

# 영상을 통해 세상을 보라, 제7회 한성대 영상제



지난 14일 미래관 DLC에 제 7회 한성대 영상제가 뜨거운 열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영상제는 한성대 학우뿐만 아니라 전국의 대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총 114개의 팀 중 10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김동환(학생지원팀) 처장은 "문학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영상의 힘을 빌려 문화와 영상이 공존하는 시대가 온 것 같다"며 "영상제 자체가 관심의 표명이라기보다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는 자리였으면 한다"고 본 영상제에 대해 축사를 전했다.

이번 영상제의 대상은 <아버지는 얼굴도 몸도 빨간 디는 하나도 없는

디 워져 사람들은 아버지를 빨간이라고 할까?>의 본교의 김은하(화학 4) 학생이 수상했다. 본 대상작은 조 정래의 태백산맥을 원작으로 만든 애니메이션이다. 어린 남매의 대화를 통해 한국전쟁 시기의 전쟁의 모습이 생활상에 녹여 있는 것을 표현하였다.

김은하 학생은 "시각영상디자인 학을 부전공으로 공부하는 중이라 영상제작에 아직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에 불구하고 상을 받게 되어 기쁘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최혜정기자 hipo96@naver.com

# '제8회 한성인 프레젠테이션 대회' 본선 치러져



지난 11월 20일 오후 1시 30분에 미래관 DLC에서 '2014년 제8회 한성인 프레젠테이션 대회' 본선이 열렸다. 예선은 11월 14일 오전 10시에 진행되었으며 예선을 통해 10명의 본선 진출자가 가려졌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아날로그식 삶의 사례를 조사하여 그 장점을 설명하고 자신만의 아날로그식 삶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제시하기'와 '세 개의 제시문을 참고하여 한국인의 태도와 그 태도가 불러올 수 있는 사회문제를 분석하고 이러

한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시'였다. 참가자는 두 주제 중 하나를 택하여 발표를 진행했다.

수상자는 ▲최우수상 임은영(경영 10), ▲우수상 이기영(경영 12), 이지원(한국어문학 13), 최미희(무역 14), 조영환(기계시스템공학 08), ▲장려상 이현수(한국어문학 09), 강준현(정보통신공학 14), 김재령(경영 14), 권현진(시각영상디자인 14), 김재원(경영 09) 학생이었다. 최우수상 상금 50만 원, 우수상 상금 20만 원, 장려상은 상금 10만

원이 지급되었다. 최우수상 수상자인 임은영(경영 10)은 "이제 4학년이어서 이번 대회가 교내에서 참가할 수 있는 마지막 대회일 수도 있는데 학교생활을 잘 마무리하게 된 것 같아 기쁘다"며 "요즘에 준비하는 일들 중 잘 안 풀리는 것들이 많은데 이런 식으로 하 나를 준비하고 이뤄 내는 것이 다른 일을 해낼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경호 수습기자 kyoung516@hansung.ac.kr

## 동정란

### 정성훈(정보통신공학과) 교수

정 교수는 지난 11월 29일 한양대학교(ERICA 캠퍼스)에서 열리는 2014년도 대한전자공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Cellular Cosmos: 셀 수준의 진화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프레임워크"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다.

### 김승천(정보통신공학과) 교수

김 교수는 지난 11월 29일 한양대학교(ERICA 캠퍼스)에서 개최된 2014년도 대한전자공학회 정기총회에서 대한전자공학회 논문상을 수상했다.

### 박두용(기계시스템공학과) 교수

박 교수는 지난 11월 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개최된 아시아산업위생전문가협회(AANO)창립총회에서 2015년부터 2016년 까지 초대회장으로 피선됐다.

[학술정보관 홈페이지 메뉴 추가]

## 최신 DVD 코너 추가!

최근 3개월 내 입수된 DVD 리스트를 입수일자 순으로 조회할 수 있는 메뉴

## 추천 DVD 코너 추가!

사서가 추천하는 영화/교양 DVD를 이미지와 함께 소개하는 메뉴 (최근 입수된 DVD 대상)

## 홈페이지에서

## 최신 DVD

## 추천 DVD

## 를

## 빠르고 쉽게

## 확인할 수 있어요~



\* 경로 : 학술정보관 홈페이지 > 소장자료검색 > 신착자료 > 최신 DVD (추천 DVD)

# SNS익명 페이지 새로운 소통의 장

## ‘한성대학교 대신 말해드려요’를 인터뷰하다

한성대학교 대신 말해드려요  
11월 22일

오늘도 마음씨 고우신 한성대학우문께서 문실물 제보해주셨어요! 반지찾아가세요 ~ #지선관



**익명이요 오늘 저녁쯤에 미래관 실습실  
맞은편 여자화장실  
손씻는곳위에선반에서 주운 반지에요!  
잃어버리신분한테 소중했던것일수도  
있어서 제보드려요!**

▲한성대학교 대신 말해드려요 페이지에 올라온 게시물이다.

최근 '대신 전해드립니다', '대나무 숲', '훈남훈녀' 등의 익명 기반으로 한 페이스북 페이지가 하나의 소통 방식으로 대학가의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SNS 익명 페이지는 오프라인 또는 실명 SNS상에서 제대로 소통하지 못했던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으로 학생들의 인기를 끌게 되었다. 그렇다면 본교의 익명 페이지는 어떻게 자리매김할 수 있었을까. 이는 '소통의 장' 역할을 해내고 있을까? 이에 '한성대학교 대신 말해드려요' 페이지 관계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한성대 대신 말해드려요(이하 한

**대말) 페이지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타 대학에는 익명 페이지가 있는데 우리 학교는 없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누군가가 만들었으면 좋겠다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누군가에 의해 페이지는 만들어지지 않았다. 타지에서 올라와 적응하는 동안 아는 사람이 얼마 없어 힘들고 심심했다. 많은 사람들과 친해지고 소통하고 싶어서 페이지를 만들게 되었다. 5월 9일 페이스북 페이지가 생성되고 초기 페이지 이용자는 100~200명 남짓이었다. 페이지 이용자들을 늘리기 위해 음악추천과 연예 관련 글을 올리기도 했고, 사비를 모아서 엽기사진 공모 이벤트를 진행하며 소정의 선물을 증

정하기도 했다. 이렇게 시작한 한대말 페이지는 현재 약 3천 명의 이용자들이 찾게 되었다.

### 페이지 관리자 선발기준은?

초기에는 이용자수가 많지 않아 혼자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었는데 이용자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제보도 많아졌다. 혼자서 감당하다보니 제보한지 10시간이 지나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다. 그래서 원활한 페이지 관리를 위해 관리자를 선발하기 시작했다.

관리자는 현재 남자 4명, 여자 2명으로 총 6명의 관리자로 이루어져 있고, 관리자 모두 1학년이다. 선발 기준은 기본적으로 한대말 페이지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비밀유지를 잘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선발했다. 그리고 같은 학년으로 선발하려고 노력했다. 학년이 같아야 페이지 관리에 대해 의논할 때 마찰이 적을 것이라 생각되어 1학년 위주로 선발했다. 관리자가 늘어나면서 게시물을 올리는 속도가 빨라지게 되었고 그만큼 페이지도 활발해졌다.

### 한대말 게시물의 기준이 있다면

페이스북 메시지로 온 제보를 먼저 보는 사람이 그 제보를 받아 올린다. 그리고 게시물 기준이 있다면 이전에는 무조건 익명제보만 받았고, 특정인물을 비난하는 제보를 제외한 대부분을 게시했다. 하지만 진위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제보를 게시하면서 논란이 생기기도 했다. 그래서 현재 진위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글은 올리지 않는 기준이 추가되었다. 이렇게 페이지를 관리하면서 겪은 시행착오를 경험삼아 체계를 잡아나가고 있다.

### 신상이 밝혀지는 것에 대한 걱정은 없었는지

관리자의 익명성을 위해 친한 친구들에게도 관리자임을 밝히는 것은 절대금지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진위여부가 불확실한 게시물이 논란이 되면서 이해관계자들이 학교에 고발하겠다는 식으로 언성을 높이며 신상을 묻기도 했다. 처음에는 걱정도 했지만 오해를 풀고 잘 해결되었다. 페이지가 소구

모일 때는 체계가 잘 잡히지 않아 관리자에게 심한 말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페이지 규모가 커지고 체계가 잡혀나감에 따라 사용자들도 좋은 말을 해 주시는 경우가 많아졌다.

### 페이지를 관리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제보가 있다면

천일 된 커플의 제보가 들어온 적이 있었다. 관리자들도 함께 진심으로 축하하며 사비를 모아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렸다. 그 후에도 페이스북 메시지로 주고받았다. 그리고 한 대말을 통해 연결된 커플도 있다. 이 커플도 나중에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냈고 지속적인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 요즘 홍보 게시물이 늘어난 것 같은데

홍보게시물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이전에 한 홍보 게시물에 약 8,000건의 '좋아요' 건 수를 기록하면서 홍보요청이 부쩍 늘었다. 하지만 이런 홍보 게시물에 있어서는 정말로 한성대 학우들에게 필요한 정보이거나 한성대 학생들이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올리려고 노력한다.

### 한대말 페이지를 관리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한대말, 한대숲, 훈남훈녀 페이지를 모두 만들고 관리하고 있지만 현재 한대말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다. 단순한 익명제보를 위한 페이지가 아닌 서로 소통의 장이 이루어지는 페이지로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현 대학사회에서 SNS익명 페이지가 새로운 '소통의 장'으로서 이목을 끌었으나 상호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유행에서 그치고 있다. 본교 한대말 페이지의 경우 분실물 신고나 홍보 등의 게시물은 활발하게 게시되고 있다. 하지만 언쟁이 일어나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게시물을 자체적으로 거르기 때문에 건설적인 대화가 오기에는 한계가 있다. 대학가의 SNS 페이지가 단순한 열풍으로 그칠지 새로운 소통의 매체로 자리 잡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지선 기자 mongrock@hansung.co.kr

## 현장의 시선

# "대학가에도 신사협정이 필요하다"

"전문대학이 4년제 대학처럼 되려고 하고 있다", "4년제 대학이 전문대학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

최근 대학가에서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말이다. 한 마디로 4년제 대학은 전문대학에, 전문대학은 4년제 대학에 불만을 품고 있는 것이다.

먼저 4년제 대학 입장에서 보자. 과거 전문대학의 장은 '학장'으로 불렸다. 그리고 전문대학은 교명에 '교'자를 사용하지 못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면서 전문대학의 장을 부르는 호칭이 '학장'에서 '총장'으로 변경됐으며 전문대학 교명에 '교'자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간호과를 중심으로 전문대학에 4년제 과정이 도입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전문대학은 위상이 향상됐다고 자부하고 있다. 하지만 4년제 대학은 전문대학이 자신들과 동급화되는 것을 반기지 않고 있다.

반면 전문대학 입장에서 4년제 대학의 전문대학 학과 베끼기를 지적하고 있다. 실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의원이 공개한 정책자료집 '전문대학 10년의 변화와 박근혜 정부 전문대학 정책 진단'에 따르면 4년제 대학의 전문대학 학과 설치는 2004년 43개 교, 80개 학과에서 2015년 108개 교, 303개 학과로 증가했다. 분야별로 보면 전문대학의 대표 학과로 꼽히는 보건계열 학과가 급격히 늘었다. 실용을

약 관련 학과, 조리 관련 학과, 뷰티·미용·메이크업 관련 학과의 증가폭도 컸다.

현행 고등교육법에는 4년제 대학의 경우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기관으로, 전문대학의 경우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규정돼 있다. 즉 법적으로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역할과 기능이 명확하게 구분된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간 경계선이 무너지고 있다. 전문대학의 위상이 4년제 대학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향상되고 있으며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4년제 대학이 전문대학의 실용교육을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긍정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역할과 기능이 모호해지며 '원-원'이 아닌 '치킨계엄'어느 한 쪽이 양보하지 않을 경우 양쪽이 모두 파국으로 치닫는 게임이론' 양상을 띠고 있다면 부정적인 현상이다.

물론 시대와 사회가 변화하면 그에 맞춰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역할과 기능이 변화해야 한다. 그러나 고유의 역할과 기능마저 퇴색할 경우 이는 국가발전 측면

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한 전문대학 총장은 기자에게 "조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4년제 대학생과 전문대학생이 있다면 누구를 고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다. 정답은 '전문대학생'이다. 고용자 입장에서는 조리라는 기능 분야에서 인건비가 비싼 4년제 대학생 졸업생을 굳이 고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4년제 대학 졸업생들은 어떻게 될까? 취업시장에서 미아가 될 확률이 높다.

따라서 대학가에도 신사협정이 필요하다. '고등교육'을 책임지는 4년제 대학이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고등직업교육'을 책임지는 전문대학이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서로의 영역을 존중해주고 보충해줘야 한다.

이와 관련 정부와 국회의 역할도 중요하다. 정책적, 법적 기반 없이 대학가의 신사협정은 요원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취업률 평가를 앞세우면서 4년제 대학들이 취업에 유리한 전문대학 인기학과를 경쟁적으로 설치하고 있다. 취업률 평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든지, 아니면 아예 제외하든지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또한 국회는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이 고유의 영역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뒷받침될 때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간 상생발전이 가능하다.

## ‘다문화 아동 멘토링 프로그램’ 해단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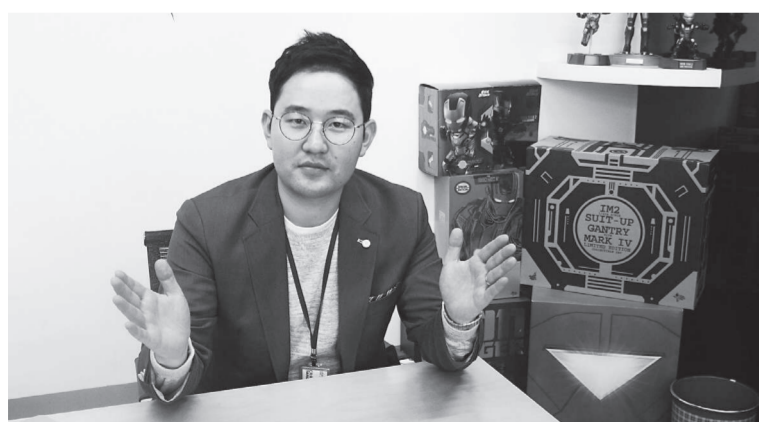
**모시는 글**  
성북구장이 후원하고 한성대학교가 주관하는 '다문화 아동 멘토링 프로그램'의 해단식을 다음과 같이 진행할 예정이오니, 부디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아동 멘토링 프로그램’**  
일시: 2014년 12월 6일(토) 10시  
장소: 한성대학교 미래관 DLC  
문의: 한성대학교 언어교육원 ☎ 760-4374

한성대학교 언어교육원장

## 청년 CEO를 만나다

# 창업기업의 제갈공명, 온누리DMC 윤거성이사



▲ 온누리DMC 윤거성 이사의 모습이다.

온라인 쇼핑 중 당신이 장바구니에 넣은 상품들이 광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이는 경험을 한 번쯤 겪어봤을 것이다. 이렇게 방문자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여, 가장 최적화된 광고를 다양한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기술을 리타겟팅(개인화 광고)이라고 한다. 보통 PC에서 이 광고의 플랫폼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러나 모바일에서는 좀처럼 이 형태를 보기가 힘들다. 인터넷에 접속하는데 모바일은 웹과 앱이라는 서로 다른 플랫폼

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어려운 모바일에서의 리타겟팅을 국내 최초로 구현한 기업이 있다. 바로 '온누리DMC'이다. 법인을 설립하고 6개월 만에 30억 원의 투자유치를 이루며 기업 가치를 600배 이상 끌어올린 온누리DMC의 윤거성 CSO(Chief Strategy Officer) 전략 이사를 만났다. 윤거성 이사는 본교 경영학과 04학번 졸업생이다. 윤거성 이사는 재학 시절 벤처창업동아리 VISION

의 회장을 맡으면서 항상 창업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 LG 유플러스의 기술영업사원으로 일하던 중 당시 한성대 벤처창업지원센터장이었던 주영혁 교수의 권유로 정부에서 예비기술창업자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낯에는 회사원으로 일하고, 밤에는 신혼부부를 위한 큐레이션 쇼핑몰 '웨딩라이프'의 CEO로 일했다.

아침 차게 시작한 창업은 1년도 채 되지 않아 끝이 났다. 윤거성 이사는 "처음 창업을 시작했을 때, 한 달 매출이 천만 원 이상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직원 5명을 1년 만에 해고하면서 독창적인 아이디어만으로 창업이 성공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느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는 이후 LG 유플러스를 퇴사하고 새로운 직장을 다니던 도중 온누리DMC 이태원 대표를 만나 법인 설립도 되지 않은 온누리DMC에 합류하게 되었다.

온누리DMC가 개발한 모바일 리타겟팅을 투자자에게 알리는 것이 윤거성 이사의 역할이었다. 초기에는

대부분의 투자자가 투자를 거부했다. 그러나 다양한 업계관계자를 만나며 그들이 지적한 단점을 보완하고 끝없이 소통하며 성장했다. 창업경진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이 아이템의 우수성을 증명했다. 윤거성 이사는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 훌륭한 기술과 디자인을 가지고 있음에도 팔지 못해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며 "중요한 것은 소통과 발전이다"고 말했다.

스타트업 기업의 대표와 참모 역할 모두를 경험한 윤거성 이사는 "창업을 한다고 해서 대표가 될 필요는 없다. 창업을 하는 길 중에는 스타트업에 들어가는 것 역시 포함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윤거성 이사는 학생들에게 "끈기를 강조한다. '자본이 부족한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 돈 때문에 기업을 떠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믿고 기다리는 것 역시 창업 기업의 참모가 갖추어야 할 자질이 때론'이라고 조언했다.

노유진 기자 lyj2108@hansung.co.kr

# 느림의 미학과 여행



교단에서

조규태 교수  
(역사문화학부)

두 해 전, 나는 수술을 받기 위해 병실에서 홀로 아침을 맞이한 적이 있다. 창을 통하여 들어온 햇살이 눈두덩을 어루만져 주는 촉박을 즐기며,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기억나는 때가 언제인지 생각해보았다. 그때 떠오른 것은 사 년 전 우리학교의 학생들과 바누아투에 해외봉사를 가서 만난 조그마한 초등학교 교장 아들의 눈망울이었다. 입은 웃은 형편이었지만, 사랑스럽고 행복한 미소로 반겨주던 그 아이의 눈망울이 커다란 보석처럼 나의 뇌리에 떠올랐다. 바쁘게 정신없이 지나다가 세계 최빈국이지만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 어린이의 순진무구한 모습을 보고 충격적 인상을 받았으나 보다.

바누아투 사람들의 삶과 같이, 행복은 목표를 빨리 성취하는 데에서 오는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뚜렷한 목적 없이 느끼게 여유를 즐기는 데에서도 얻을 수 있다. 등갓길에, 자가용을 이용하는 대신, 전철과 버스를 타고 골목길을 걸으며 사색하는 즐거움은 경험해본 사람만이 안다. 교수와 학습이 엄

격하게 진행되는 교실에서 벗어나, 석모도 보문사에서 말없이 낙조를 바라보는 행복은 역사문화학부 학생만의 특전일까?  
이제 반 달 남짓 있으면 방학이다. 학과 공부, 어학 공부, 자격증 획득, 취업 준비 등으로 바빴던 한성대 학생들이여, 여유를 갖고 여행을 떠나자. 배낭을 메고 산과 들과 섬으로 떠나자. 그곳에 가서 자연과 풍광을 보고 느끼자. 그럴 여유가 없으면, 학교 올라오는 길에 한양도성을 타고 올라오던가, 집에 가는 길에 정순왕후가 유배지로 가던 단종을 지켜보았다는 동방방에 올라가거나, 점심시간에 낙산의 '지봉(芝峰)'과 이수관이 살았던 비우당(庇雨堂)에 가보기라도 하자.

시간은 많은데 돈이 없는 것을 타하지 말자. 찾아보면 무료로 답사할 수 있는 기회는 많다. 한성대 역사문화학부와 성북문화원은 이번 방학에 특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성북구의 역사문화유적을 답사하는 행사를 가질 계획이다. 서울역사박물관에서는 한양도성 걷기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얼마 전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는 매주 토요일 서울과 수원 등지의 문화유적을 답사하고 수료증까지 주는 사업을 실시한 적도 있다.

해외답사의 경우도, 대학생이란 특혜를 이용하면 저렴하게 갈 수 있다. '장준하기념사업회'에서는 매년 여름과 겨울 장준하기념본부대를 탈출하여 광복군을 찾아간 경로인 서주와 남양과 중경, 그리고 인근한 상해, 북경, 서안, 태항산 등지를 답사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백야길과장장군기념사업회'와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는 매년 여름 독립군의 현장인 봉오동과 청산리와 삼원포,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 고구려와 발해의 유적지인 집안과 동경성 일대를 답사하는 행사를 추진해오고 있다.

이번 겨울, 혼자 혹은 친한 친구 몇 명과 여행을 떠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자. 바쁜 일과 속에서 헛바퀴 도는 삶을 살다 보면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리게 된다. 때로는 현장에 파묻혀 있기보다 멀리서 천천히 바라보는 것이 실상의 파악에 도움이 된다.

# 사립대학의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회계 운영을 유도하려면



기자수첩

한지신 기자  
(의생활 1)

지난달 3일 교육부는 대학알리미에 전국 4년제 사립대학의 재정·회계지표를 처음 공개했다. 교육부는 사립대학의 재정·회계의 건전하고 투명한 자발적인 운영을 유도하고 학생·학부모에게 재정정보를 쉽게 제공해 이해를 높일 목적으로 이 지표를 공개했다. 그리고 이 지표는 대학의 지역적 특성, 일시적 자금관리, 재학생 현황 등 개별학교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한 회계연도만으로는 각 대학의 재정·회계의 좋고 나쁨을 판단할 수 없다는 한계를 드러냈다.

평소 한성대신문사 취재부 기자로서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자료 분석을 주로 도맡았다. 이번 사립대학 재정·회계지표를 분석하면서 아쉬울만 남았다. 교육부에서 공시한 '사립대학 재정·회계지표'에는 대학

교들의 재정 상황은 알 수 있지만 딱 거기까지였다. 이 지표는 수치상의 의미만 보여줄 뿐 사립대학 법적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재정 회계의 수준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다.

사립대학이 운영되려면 법으로 정한 일정 금액만큼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 지표의 수치를 보면 법규를 어기고 있는 학교들도 많이 있다. 그런데 이 점은 고려되지 않은 채 상대평가를 통해 재정·회계 수준이 가장 높은 학교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과연 법과는 무관하게 상대적으로 타 대학들에 비해 재정·회계 수준이 좋다고 해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 타당한 것일까. 굳이 법규를 지키지 않아도 타 대학 보다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교육부의 목표대로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재정·회계를 건전하게 운영을 할까. 그리고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재정·회계를 건전하게 운영해도 국가의 법규를 따르지 못한다면 과연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회계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교육부에서 공개한 전국 4년제 사립대학의 재정·회계지표는 보여 주기식의 지표에 불과하다. 진정으로 사립대학이 자발적으로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회계운영을 유도하길 원한다면 수치상의 자료만이 아닌 사립대학 재정·회계 운영과 종합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더욱 엄격한 잣대의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 다문화 아동과 함께하는 도담도담 성장기



낙산에 올라

김민지 학생  
(한국어문 3)

다문화 가정이 15만 명을 넘어선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에 따라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도 많이 변화하고 있는 듯하다. 과거에는 뉴스나 검색창을 보더라도 '다문화 가정의 겪는 어려움', '다문화 가정 차별' 등이 많았다. 하지만 현재에는 '다문화 가정 어울림 한마당', '다문화 교육은 우리 모두를 위한 선택' 등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개선과 교육적인 지원으로 편견을 해소하며 함께 나아가는 모습이 보인다.

나 또한 다문화 아동 멘토링 프로그램을 하면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었다. 다문화 가정은 지원과 보살핌이 필요 있어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하였다. 가정형편과 언어능력 부족으로 다문화 가정 아동은 학업 부진과 집단 따돌림 등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문화 아동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만난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은 그들에 대한 불편한 고정관념과 편견이라는 것을 느꼈다.

다문화 가정 아동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

작한 것은 올해 5월이었다. 아이와 처음 만났을 때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무얼 하고 싶은지 이야기하며 리스트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되도록 하고 싶은 것을 수업에서 할 수 있게끔 노력하려 하였다. 그런데 유독 아이가 책 읽거나 글쓰기를 시키면 어려워 했다. 심지어 글을 쓰려 하지 않고, 그림만 그리려 했다. 한글에 자신감이 없어 국어 공부를 싫어하는 것이었다.

국어공문이 내 전공인자라 국어는 책임지고 잘 가르쳐주고 싶었다. 그래서 일단 아이가 어떤 수준인지와 가능하고 그에 따른 수업 계획을 세워야겠다고 생각했다. 활동지를 통해 아이의 한글 수준을 파악한 후 기초부터 하나하나 다시 한 번 짚어주고 가야겠다고 느꼈다. 색종이를 가지고 가서 초성, 중성, 종성을 각각 다른 색으로 구별하여 직접 오려 붙이도록 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글의 원리에 대해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울 수 있었으며, 아이가 좋아하는 만들기 활동을 결합으로써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할 수 있게 하였다.

멘토링을 하면서 계획대로 잘 실행된 경우도 있었지만 의도대로 되지 않아 당황하기도 하고, 어떻게 풀이 가면 좋을지 고민도 많이 하였다. 그런 과정에서 '누군가의 멘토라는 책임의식이 고요되었으며, 내가 멘토의 자격이 있나 스스로에게 물어보며 나에게 되돌아보았던 것 같다. 또한, 어느 때와 다른 새로운 모습을 보이며, 항상 밝은 미소로 날 대하는 아이를 보며 다문화 가정 아이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내 생각은 잘못 되었음을 인지하게 되었다.

올해 다문화 가정 초·중·고 학생들이 6만 7806명으로 전체 학생의 1%를 처음 돌파했다고 한다.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비중은 더 빨리 늘어날 것이다. 다문화 아동 멘토링 프로그램과 같은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으로, '한(韓)민족이 아닌 한 민족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늘어났으면 한다. 다문화 사회에 관심이 있고, 아이와 함께 도담도담 성장하고 싶다면, 꼭 한 번 다문화 아동 멘토링 프로그램을 하길 권한다.

# · 사 설 ·

# 취업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이다. 이것은 손자병법 모공편에 나오는 말로 자신과 상대방의 상황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면 백번 싸워도 위태로울 것이 없다는 뜻이다. 흔히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도 한다. 싸움의 승리는 자기를 아는 것과 적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현재 대학 졸업생들은 창과 칼만 들지 않았지 취업이라는 전쟁터에 진입하는 군사와 같다. 취업 전쟁터란 말이나 학생을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에 비유하는 것이 싫고, 그런 세상을 만든 기성세대와 정치권이 원망스럽지만 이들에 대한 비난이나 원망은 일단 접어두고, 이 전쟁터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것이 급선무다.

취업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피지기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자기를 아는 '지기' 이전에 상대를 아는 '지피'가 선행되어야 한다. 사회 현상과 산업분야, 기업의 선발 경쟁성, 우리 대학 학생들이 주로 취업한 분야 등에 대한 다채롭고 의미 있는 데이터가 있어야 '지피'가 가능하다. 그리고 또한 우리 대학 학생들의 특성, 우리 대학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우리 대학의 강의 커리큘럼 및 강의 콘텐츠 등 현재 우리 대학의 강점과 단점의 현실에 대한 '지기'가 필요하다. 이러한 정보들은 소위 '빅데이터'라는 것까지 미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능한 많은 데이터를 축적하고, 세밀하게 속성과 할 필요가 있다. 즉 취업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

취업 데이터베이스는 취업을 준비하는 4학년 학생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취업 데이터베이스는 저학년 학생들의 상담에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취업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면, 학과의 진로 분야는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학점에 따라 어떤 기업에 취업하고 있는지, 학과의 졸업생이 주로 취업하고 있는지, 학과가 어떤 것인지 학생들이 궁금해 하는 것을 명확히 알려 주고 학습지도를 할 수 있다. 또한 취업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면, 영어 점수를 요구하는 기업들이 학과 취업 기업들에 있어 몇 %나 차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으며, 전공 과목 중에서 가장 취업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과목 군이 무엇인지도 분석할 수 있다. 즉, 정확하고 면밀한 상담과 지도를 통해 효율적인 학사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대학은 지금까지 이러한 정보 없이 교육하고, 이 전쟁터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루 빨리 취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누적될수록 더 큰 힘을 발휘하지만, 문제는 지속적인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와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졸업생의 취업 기업을 파악하고, 취업 기업의 속성을 분석하는 작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조교들이 졸업생들에게 일일이 문자나 전화로 연락하는 방법은 한두 번을 통할 수 있어도 정확하지도 않으며, 만일 기업이나 졸업생에게 나쁜 기억을 남기는 경우 정작 필요한 경우 정보를 얻을 수 없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오늘날 많은 사회 시스템에서 지피지기는 유용한 데이터와 통계 시스템에 기반한다. 이제는 우리 대학도 통계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학생 교육 및 상담, 취업 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이름의 무게

간혹 이런 말을 쓴다. '내 이름을 걸고'라거나 '내 이름을 걸고?'라고 말이다. 이름을 건다는 것, 딱히 잃을 것도 없을 것도 없어 보인다. 반대로 내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걸 수 없을 때도 있다. 그 이유는 아마 '이름의 무게' 때문일 것이다.

프랑스의 계몽 사상가 볼테르는 '너무나 유명한 이름은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유명한 이름일수록 그 명에는 무거운 짐이 되어 그만큼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1월 선거에서 후보자들의 이름은 얼마나 무거웠나? 아니면 반대로 얼마나 가벼웠나? 책임이라는 막중한 짐과 동시에 유명해질 이름을 걸고 나왔지만 그 이름은 생각만큼 무겁지 않

았다. 어쩌면 지나치게 가벼웠는지도 모르겠다. 투표 진행 전 치러진 정책토론회에서 그들의 가벼움은 예상 밖이었고, 그 결과 투표할 역시 가벼울 수밖에 없었다.

이름의 무게는 막대한 체 그 이름을 짊어지려 한다면 그 이름은 그저 '무거운 짐'에 불과하다. 그리고 '짊어질 수 없는' 그 짐에 잠식될 것이다. 단순히 속세의 마이크를 잡고 간식을 나누어주는 것, 이 얼마나 가벼운 이름인가. 지난해 총학생회장 리베이트 사건에 이어 올해 학내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뒤이을 책임자의 이름은 더욱 무거워야 한다. 그리고 내년 3월 치러질 보궐투표할 역시 무거워지길 바란다.

# 학생자치기구의 노력이 필요한 때



한성인께

권남혁  
(역사문화 3)

안녕하세요. 한성대학교 언론연합회 회장 권남혁입니다. 언론연합회는 한성대 프레스센터 즉, 한성대학교 신문사, 방송국, 영자신문사의 삼사가 합심해 만든 자치기구입니다. 저희 한성프레스센터는 언론의 자율성을 높이고 보다 수준 높은 정보를 한성인 여러분께 전달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1학과와 2학과 초 언론 삼사 홍보 사업을 시작으로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시행된 2014년도 총선거 정책토론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공동 주최하였습니다. 많은 학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매우 뜻 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작년까지 총선거 정책 토론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단독 주최하여왔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올해에 공동 주최를 하게 된 배경은 바로 일반 학우 여러분들의 접근성 때문이었습니다. 총선거 정책 토론회

와 같은 중차대한 행사를 좀 더 많은 학우들에게 알리고, 또 접할 수 있게 하여 더 친근한 학생회, 언론사를 만들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HBS한성대학교 방송국의 도움으로 학생식당 TV에 토론회 장면을 생중계 할 수 있었고, 신문사의 발 빠른 취재 덕분에 더욱 풍부한 토론회가 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진 부분은 아마 많은 학우 분들께서도 가장 관심을 가지셨을 것이라 생각하는 '선거 공약'에 관한 내용이었습니. 2014년도 총학생회를 비롯한 많은 관련자 분들이 참석하여 각 후보들의 공약을 철저히 검증하였습니다. 공약은 명칭 그대로 학우 분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 실효성 등에 큰 비중을 두고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몇몇 공약들은 비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비판이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약을 준비했던 후보 여러분들에

게는 쓰디쓴 일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개선해 나가고 자정 능력을 키워 나간다면 학생회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한성대학교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요즘 "학교의 주인은 더 이상 학생이 아니다."라는 말이 타 학교 사이에서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대학교라는 곳은 학생들에 의해 유지되고 발전되는 곳입니다. 일반 학우 여러분들부터 시작해서 학우 여러분의 의견을 대변해주는 학생회, 학생 자치기구까지의 노력이 지속된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학교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언론연합회 역시 그러한 노력에 동참하여 학생들이 더 편한 학교를 만드는 데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낙산만평

한지신(의생활 1)



# 꿈의 대화

남인숙 작가를 만나다

‘꿈의 대화’는 자신의 꿈을 실현하여 성공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멘토와 멘티(본고 학생)가 만나 꿈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는 기획코너입니다.  
(편집자주)

## 남인숙 작가, 그녀를 읽다

『여자의 모든 인생은 20대에 결정된다』는 저자인 남인숙 작가를 국내 뿐만 아니라 중국, 대만, 베트남, 태국, 몽골 등에서 ‘여성들의 언니’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긍정적인 메시지를 독자들에게 전해주고 싶어 낮에 글을 쓴다”는 그녀의 긍정적인 힘은 이번에 출간한 남작들에 관한 이야기인 『남자의 모든 인생은 20대에 결정된다』에도 담겨 있다. 작가 지망생이자 그녀의 팬인 멘티와의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그녀를 만나보자.

**멘티: 작가가 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멘토: 저는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아르바이트는 다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직업체험과 같이 많은 도움이 되어 제가 글을 쓰는 것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실 하나는 확실히 알았지만 글 쓰는 것을 직업으로 삼았다는 것은 굵어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웃음)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다양한 경험을 할수록 저는 글을 쓰는 것을 직업으로 선택해 살아야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한 번 살아가는 인생인데 내가 좋아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아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지요. 작가가 된 결정적인 계기는 20년 짜리 연극 대본을 쓰는 아르바이트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쓴 대본으로 전문 연극배우들이 연극하는 것을 보니 머릿속에서 종이 울린다고 해야 하나, 가슴이 떨리고 희열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는 영화 시나리오 작가나 드라마 작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공모전을 통해 영화 시나리오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나리오 작가를 하는 동안 우연한 기회로 기획했던 아이디어들을 바탕으로 소설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시나리오 작가처럼 공동으로 작업하는 것보다 혼자 글을 쓰는 것이 더 적성에 맞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소설을 출간한 것을 기점으로 책을 쓰는 작가로 전향하게 되었습니다.

**멘티: 베스트셀러 『여자의 모든 인생은 20대에 결정된다』에 이어 『남자의 모든 인생은 20대에 결정된다』를 집필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멘토: 『여자의 모든 인생은 20대에 결정된다』에 이어 10년 만에 출간한 책입니다. 사실 그 책을 발간한 후부터 남자 편도 써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여자의 모든 인생은 20대에 결정된다』가 자신있었던 이유는 제가 여자이고 20대를 지나왔으므로 언니로서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남자가 아니고 20대 남자의 인생을 직접 경험한 것은 더욱 아니기 때문에 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삶이 나아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한 책들을 집필하는 동안 남자의 심리나 라이프 스타일에 관해서도 부수적으로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남자에게 특화된 이야기를 성숙한 시각으로 바라볼 준비가

되어서 『남자의 모든 인생은 20대에 결정된다』를 출간하게 된 것입니다.

**멘티: 소설가를 꿈꾸는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역량은 무엇인가요?**

멘토: 일단 수입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안돼요. 소설가협회에서 조사한 바로는 소설가들의 평균 연봉이 500만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글을 쓰는 일을 돈을 벌기 위한 생계수단으로 선택했다기보다는 제가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먹고 살 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본 다양한 일들 중에서 가장 쉬운 일 또한 글 쓰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부터 소설가가 될 수 있는 자질이 있을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저는 병무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이었던 배우가 작가님이 부러웠습니다. 공무원 일을 하면서 생계와 함께 소설을 쓰는 분이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소설가가 되기 위해 꼭 국문과를 졸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글을 쓰는 경우에 다른 직업의 경험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삶에 전념하여 이야기를 쌓아가다 보면 그 이야기를 쓰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렇기에 그것을 글로 써서 소설가가 되어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쌓아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멘티: 글을 쓰는 직업은 혼자서 해야 하는 고독한 직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고독해 질 때마다 어떤 일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멘토: 정말 고독해요. 그래서 인터뷰나 미팅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하는 것이 너무 좋아요. 그로 인해 글을 쓸 수 있는 원동력 또한 얻습니다. 또 저는 저녁에 가족들과의 소통을 통해 외

로움을 해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독함을 버티기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 시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진행하기 보다는 작업환경에 변화를 줍니다. 특히 여러 곳의 카페에서 글을 쓰는 것이 집중도 되며 고독함을 버티는데 도움이 됩니다.

**멘티: 20대에게 전하고 싶은 조언이 있으시다면?**

멘토: 이 세상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들보다 우연히 하게 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나 꼭 하고 싶은 일을 해야만 한다는 생각도 들어요. 하고 싶은 일이 자신과 맞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저도 시나리오 작가를 계속 하고 싶었지만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만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과정마저 없었다면 제게 시나리오 작가는 직업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이 필요한 것 같아요. 혼자 스펙만 쌓는다고 해서 자신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험을 할 때 자신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통해 자신을 알게 됩니다. 20대에겐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데 있어 아르바이트나 여행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20대만 할 수 있는 배낭여행을 통해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자신을 찾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세상에 천 가지 활동이 있다고 해서 천 가지 전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남들이 한 가지 활동을 할 때 나는 100개의 활동을 한다면 나머지 900개에서도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이 경험을 하는 것이 오히려 시간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 경험을 하게 되면 시간뿐만 아니라 돈, 건강까지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대가 경험을 하기에는 최적의 시기인

것입니다. 20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멘티: 앞으로 작가님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멘토: 참신한 기획을 바탕으로 같이 일을 하자고 제안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기획이 진행되고 있는 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책을 집필할 때에는 그 다음 책에 대한 영감이 떠오릅니다. 현재는 30대 여자들에 대한 우화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유니버스 소설 형식으로 30대 여자들의 삶을 조명해보면서 독자들의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는 내용이에요. 동

시에 독자들을 위로해 주기도 하는 책을 출간할 예정입니다.

이번 꿈의 대화는 아늑하고 조용한 카페에서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남인숙 작가는 “오랜만에 향기가 나는 청춘들과 같이 이야기하니 좋았습니다. 인생을 더 많이 살았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과 제 이야기를 경험해줄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행복합니다”며 “즐거워 대화였습니다. 자몽주스도 잘 먹었어요. 힘이 된 것 같아요”라고 소감을 전했다. 순수하게 자신이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글쓰기를 계속해나가는 남인숙 작가처럼 스펙에 쫓기는 나 자신을 진정으로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어떨까?

오혜진 기자  
dhgplws0424@hansung.ac.kr



▲멘티의 질문에 답하는 멘토 남인숙 작가.



▲멘토의 설명을 듣고 있는 멘티 이예나(한국어문 1)학생.

### 대학원의 품격

## 공공의 리더를 배출하는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실천적이며  
창조적인  
사회복지전문가  
양성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최천근 교수.

임신부,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 수요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 1995년에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를 신설했다. 20년간 유지되면서 졸업생 총 400여 명을 배출한 성과를 거두었다. 사회복지학과는 교육목표는 각종 사회복지정책과 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천할 창조적이고 유능한 사회복지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다. 사회복지학과 세부전공에는 사회복지 전공, 노인복지 전공, 실버산업 전공, 사회복지상담 전공이 있다. 각 세부전공을 모두 이수하면 사회복지

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사회복지학과는 어린이집 원장이나 요양병원 관련 사람들 등 사회복지기관에서 현재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실무적인 것을 깊게 배우기 위해 입학한다. 매 학기 9개 과목을 개설하는 사회복지학과는 원생들의 선택의 폭을 높인다. 현재 개설된 과목은 사회복지상담학개론, 노인상담, 사회복지행정론, 논문연구지도, 인간행동과 사

회환경, 사회보장론, 사회복지현장실습,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사회복지실천론이 있다. 그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이행해야 하며 원생들이 각자 희망하는 복지기관을 섭외해 현장실습을 진행한다. 섭외를 실패한 원생들은 본교 사회복지학과와 MOU를 체결한 우리복지기관에서 현장실습을

할 수 있다. 본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원생들의 만족도를 충족시킨다. 첫 번째로 친목도모와 학습을 위해 활발한 원우회를 진행하고 있다. 워크숍과 엔티 등을 통해 50여 명의 원생들이 함께 정보를 교류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국내의 선진시설과 협약을 체결해 해당 사회복지기관을 견학하는 워크숍을 진행한다. 국내는 매 학기마다, 해외는 홍콩, 일본, 대만 등으로 1년에 한 번씩 선진시설을 방문한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학과는 사회복지사 1급, 상담전문가 1급, 심리상담사, 미술치료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방학 때 제공한다. 작년 6월 여름 방학에는 한국상담전문가연합회와 MOU를 체결해 사회복지상담전문가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특강을 개설했다. 또한 작년 겨울방학에는 한국색채심리치료협회와 MOU를 체결하여 미술심리상담사 교육과정을 진행하기도 했다. 최천근(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주임교수는 “원생들의 많은 지원과 다양한 교과 프로그램을 개설해 원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등 양적과 질적 모두 으뜸학과이다”며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오혜진 기자  
dhgplws0424@hansung.ac.kr

### THE HANSUNGS

글: 그림 최혜정(의생활 1)





# 시부문 당선작

## 심해

나는 상상해

깊은 어둠 속을 물결로 가르고

떠오르는 너

깊은 밤으로부터 올라온 너의 태동은

발끝으로 부터 올라온 작은 소리들

거뭇하게 시들어가던

네 발의 꽃들을 깨워

발각게 피어오르던 그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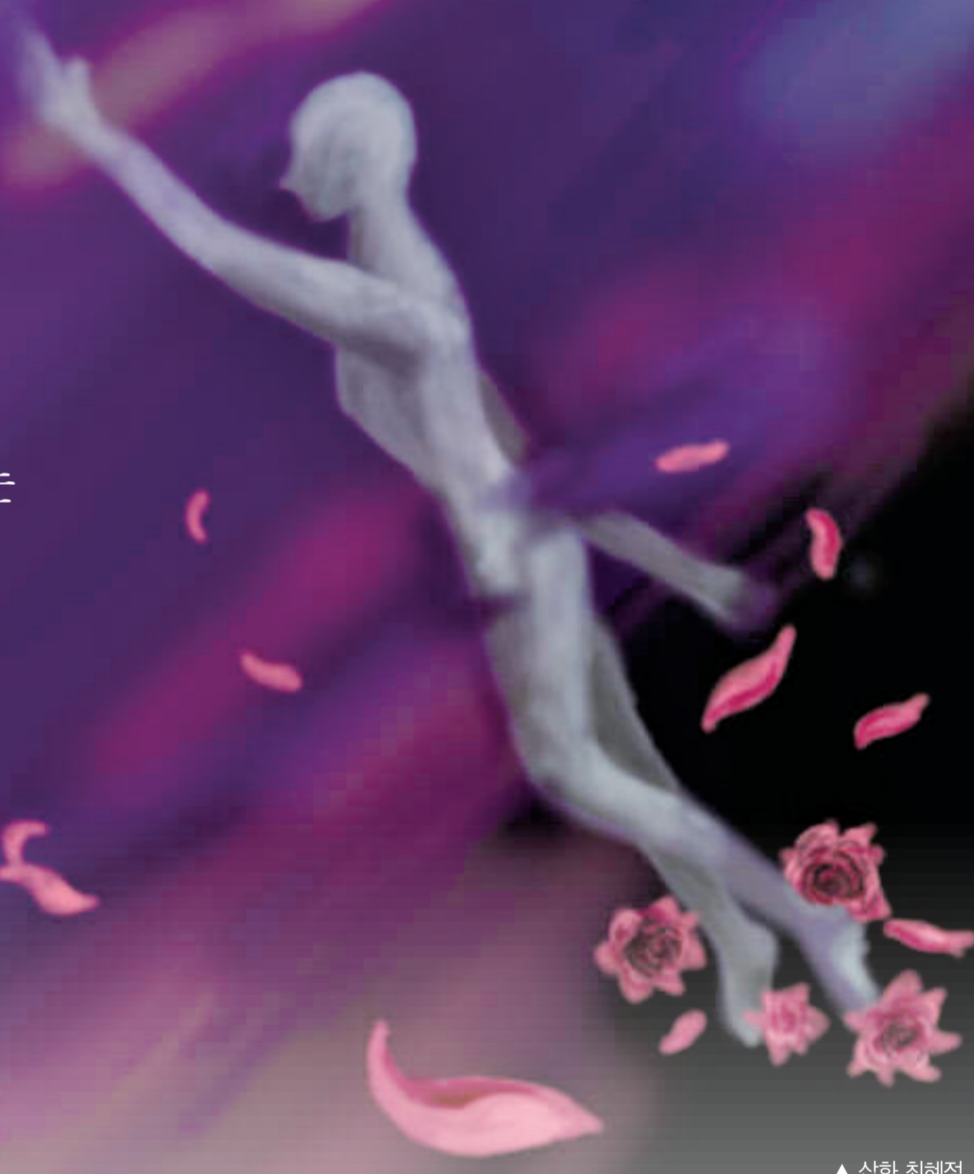
스러져가는

여위어가는

나의 그림자를 안은 채

빛이 되었더랬지

그렇게 너를 가득 담은 나의 태내는



▲ 심화 최혜정

### 시부문 심사평

## 모성적 상상력이 만들어내는 따뜻한 감동 돋보여



문태준 시인

제 29회 한성문학상에 응모한 작품들을 읽었다. 시 부문에는 총 39명이 약 200여 편의 작품들을 보내왔다. 수준 높은 작품들이 많아서 심사가 쉽지 않았다. 숙련되어 있었고, 시행의 진행과 시를 조직하는 일에 대한 이해가 좋았으며, 개성적인 시안(詩眼)도 시선을 끌었다.

마지막까지 눈길에 간 작품들이 많았다. 「무인도 카페」 외 6편은 하나의 어떤 행위와 사건이 '시적인 것'으로 포착되고 포획되는 그 순간을 잘 아는 능력

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생의 어떤 은밀한 속성과 내밀하게 연결되지는 않아 아쉬웠다. 가령 '소과의 길'은 자신의 구체적인 몸과 자신의 키의 수치일 뿐만 아니라 삶에 대해 느끼는 무력감의 크기 같은 것으로 쪽 멀리 깊게 뻗어나갔어도 좋았을 것이다.

「해무」 외 5편은 생활에 잘 착근한 상상력을 보여주었다. 시상이 가족사의 물레를 벗어났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반면에 「백치」, 「이산」과 같은 경우는 단형의 시에 그 크고 많은 생각들을 담는 것이 애초부터 불가능해 보였다.

「반딧불이」 외 4편은 서정적인 울림이 좋았다. 그러나 '스치우고', '비치우는' 등의 어투가 어색했고, 감정 노출이 과도한 경우도 있었다.

「언덕 위 소동」 외 4편은 관찰력이

면밀해서 좋았다. 그러나 초점의 수를 조금 줄였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자유권」 외 4편은 마지막까지 당선작과 경합을 했던 작품들이었다. 단문의 구사에서 오는 특유의 울동과 경쾌감이 있었다. 세계를 바라보는 순정한 마음도 돋보였다. 우리나라 시어들에 대한 학습이 필요해보였지만, 그것보다 시심을 잘 키우고 보존하길 바란다. 이외에 「비누」 외 4편, 「파장」 외 5편의 작품들을 눈여겨보았다.

제 29회 한성문학상 수상작으로는 시 「심해」를 선정했다. 응모한 작품들이 고른 수준을 보여주었고, 시어를 낭비 없이 활용하는 능력도 신뢰를 갖게 했다. 특히 이 시는 캄캄한 해저(海底)를 생명이 잉태되는 최초의 곳, 우주 존재가 보 호받으며 활동하는 곳 등으로 바라보면

서 그 공간을 '태내(胎內)'로 인식하는 모성적 상상력을 보여주었다. 절명과 낙망과 어둠의 공간을 환생과 희망과 빛의 공간으로 상승시키는 힘을 함께 보여주었다. 수상을 축하드리고, 더 많이 분발 하길 바란다. (문태준 시인)

### 문태준(文泰俊)

1970년 김천에서 태어났다. 고려대 국문과와 동국대 대학원 국문과를 졸업했다. 1994년 『문예중앙』으로 등단했다. 시집으로 『수런거리의 뒤란』, 『맨발』, 『가제미』, 『그늘의 발달』, 『먼 곳』 등이 있다. 미담문학상, 소월시문학상, 노작문학상, 유심작품상 등을 수상했다.

### 시부문 당선소감

## 꽃은 어둠 속에서 핀다



염민경 (한국어문)

늦은 오후 다섯 시쯤, 문자 알림을 보고 당선된 것을 알았습니다. 기쁜 마음 반, 당황스러운 마음 반으로 신문사에 전화했고, 당선을 확인하고 나서야 입이 찢어져라 웃었네요. 담당자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작은 자부심을 가지고 소감을 씁니다.

사실 펜을 잡은 것이 햇수로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을 받게 되어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합니다. 제 글에 자신이 없어서 작품을 제출하면서도 불안하기만 했는데 2학기에 시 관련 강의를 들으면서 창작 시를 써보았던 것이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네요. 좋은 작품을 쓸 수 있게 도와주신 한국어문학부 소모임 정류장에도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활자로만 보니 굉장히 차분해 보이는데, 사실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대학 합격한 이후로 처음 바닥에서 좌우로 굴러다녀본 것 같네요. 2014년을 마무리 하며 큰 선물을 하나 안고 가는 기분이에요. 뜬 눈으로 밤을 새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당선소감을 쓸 수 있게 해주신 한성대학교 신문사에게 감사드립니다. 시를 읽고 문학을 사랑하는 모든 학우님들이 누군가의 심해에서 피어날 한 떨기 꽃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빌딩 속 실내공기에 갇히다, 빌딩증후군



겨울을 맞이하면서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늘어났다. 안전보건공단에 의하면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은 무려 하루 중 21시간을 넘는다. 불쾌하도록 따뜻한 방 안에서 자신도 모르게 졸고 있거나 머리가 아파온다면 빌딩증후군을 의심해 봐야 한다.

## 밀폐된 실내환경, 빌딩증후군

밀폐된 건물 내에서 두통, 현기증, 메스꺼움, 졸음, 눈의 자극, 집중력의 감소 등을 호소하는데 이런 증상을 일명 '빌딩증후군'이라고 한다. 건물 내의 좋지 않은 실내공기가 건물 내의 거주자에게 악영향을 주는 것이다.

## 빌딩증후군이 발생하는 이유

빌딩증후군은 실내공기의 질에 좌우된다. 우선 실내공기를 지을 때부터 그 영향을 받는다. 건물을 지을 때, 에너지 절약과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단열재를 사용해 건물을 밀폐시키는데 이러한 공사방법은 실내의 공기유입을 감소시켜 빌딩증후군을 발생시킨다.

또한 실내기후조건, 공기질, 환기, 미생물성 오염물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빌딩증후군을 유발하기도 한다. 만약 실내공기가 오염되어 있는지 궁금하다면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미세먼지, 부유세균, 포름알데히드 등의 수치를 조사해 보면 된다.

## 본교 강의실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알아보다

특정 강의실에 들어가면 유독 잠이 오거나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을 것이다. 이럴 때, 빌딩증후군을 의심해 봐야 한다. 이에 본교 강의실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해 보았다. 이산화탄소는 빌딩증후군 발생 원인 중 하나이다.

본격적인 실내 측정에 앞서 우촌관 앞에서 실외 공기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해본 결과 평균 475ppm으로 \*정상수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기사는 낙산관 대강당, 진리관 강의실, 미래관 열람실의 이산화탄소 변화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대학과 지성)은 대규모 강의기 때문에 규모가 큰 낙산관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강의가 시작되는 오후 5시에 이산화탄소 농도는 750ppm으로 기준치 미만이었다. 하지만 강의가 시작되고 한 시간이 지난 후에는 1235ppm을 기록했고, 강의가 끝날 무렵에는 2350ppm을 기록했다.

이러 대규모 인원이 수강하는 낙산관 대강당과 달리 30명 내외가 수강하는 진리관 강의실을 측정했다. 학생들이 강의실에 들어오기 전인 수업 시작 30분 전 강의실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850ppm으로 측정됐다. 하지만 학생들이 강의실에 들어오고 강의가 시작된 뒤, 이산화탄소 농도는 급격히 증가하여 2700ppm을 기록했다.

또한 학생들이 시험기간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이용하는 미래관 열람실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24시간 동안 측정해보았다. 미래관 열람실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평균 757ppm으로 나타났다. 사람이 많이 몰리는 시간인 오후 5시경에는 최고수치인 1635ppm을 기록하기도 했다.

낙산관 대강당과 진리관 강의실, 미래관 열람실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해본 결과 진리관 강의실의 경우 순간농도가 2347ppm을 기록했다. 이는 세 강의실의 이산화탄소 농도중 최고 수치이다. 이 수치만 봤을 때, 진리관 강의실의 실내 공기의 오염이 심각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할 때 순간농도가 아닌 한 시간 동안 농도를 측정할 후 평균값이 1000ppm이 넘으면 공기오염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환기를 시켜야 한다.

또한 이산화탄소 농도 측정 실험 시 환기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환기가 진행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결과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실내가 차단된 상태일 때는 공기를 순환시켜주면 되지만 환기를 한 상태에서 높은 수치가 나왔다면 이는 공기오염정도가 심해 환기량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본 실험은 이산화탄소 경보기로 실험을 진행했다. 높은 이산화탄소 농도만으로 빌딩

증후군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이산화탄소 자체만으로 인체에 주는 영향은 극히 적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다는 것은 실내공기 오염물질이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고 축적되고 있다는 뜻이다.

## 작은 실천이 빌딩증후군을 예방한다

빌딩증후군은 건축할 때 좋은 기지재를 쓰고 친환경 페인트를 쓰는 것과 같이 건축과정에서 오염물질의 발생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예방법은 환기를 통해 오염물질을 해소시키는 것이다. 환기 잘 되면 모든 실내물질 오염이 해소된다. 올바른 환기방법은 창문을 열어 맞바람이 치도록 해 공기의 순환을 유도하는 것이다. 환기의 적정 시간은 오염된 공기가 땅에 깔리는 너무 이르거나 늦은 시간은 피해야 한다. 또한 한 시간당 20분으로 정기적으로 환기를 시키는 것이 좋다. 환기 귀찮게 느껴지더라도 건강한 실내환경을 위해 잠시 히터를 끄고 창문을 열어보는 것을 권하는 바다.

## \*정상수치

이산화탄소 농도의 평균값은 1000ppm을 기준으로 공기오염 정도가 얼마나 되었나를 나타낸다.

최혜정 기자 hip096@hansung.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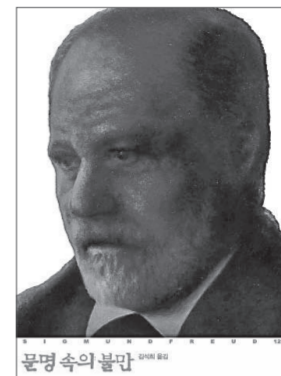
## 오픈BOOK 테스트

“오픈 북 테스트는 마치 시험을 볼 때 전공 서적을 몰두하여 읽어 내리는 것처럼 인생이란 시험속에서 도움이 되는 책을 교수님께 소개받는 코너입니다. (편집자주)”

“『문명 속의 불만』을 통해 프로이트를 만나고, 조정래의 『태백산맥』에 올라 과거와 현재, 미래의 한반도를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김귀옥(교양교직학부) 교수

## 문명 속의 불만



지그문트 프로이트 / 열린책들 / 2003.09.30. |

## 태백산맥



조정래 / 해냄 / 2007.01.30. |

나는 누구인가? 누가 또는 무엇이 나를 만드는가? 왜 나는, 또는 우리는 방향을 하며, 간혹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일까? 이 시대 압박증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그 해답의 단초를 프로이트의 『문명 속의 불만』을 읽어 찾아보자. 이 책은 문명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죄의식, 사회현상으로서 종교, 인류사의 한 과정인 전쟁의 문제에 관해 고찰한 저서이다. 프로이트가 개인의 정신생활에서 집단적인 정신생활로 관심을 확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준다.

지혜로운 사람은 거인의 어깨위에 올라 세상을 내려다 볼 수 있다. 1996년 OECD에 가입했고, 경제력 세계 10위를 넘나드는 한국은 왜 이렇게 살기 어렵고, 힘든가? 그 문제를 세상과 자신을 경영하는 마인드로 『태백산맥』에 올라 걸어보자. 1970년 문예지 '현대문학'을 통해 『태백산맥』은 왜곡된 민족사에서 개인이 처한 한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며 한의 세계와 이데올로기의 세계를 뛰어넘는 솜씨로 결합시키면서 민중의 상처와 아픔을 감싸고 있다.

## 인문하는 너

“인문하는 너는 성취, 취업 등 다양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삶의 통찰을 위해 인문학적 소양으로 답을 제시해주는 인문학 칼럼 코너입니다.”

## 지금 우리시대의 인문학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알려면 시대의 흐름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역사를 구분할 때 흔히들 시대, 중세, 근대로 나누곤 한다. 이렇게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은 세계관이다. 고대인들의 세계관은 신화로부터 시작된다. 과학적 지식이 부족했던 고대인들은 세상을 경외의 대상으로 보았고 그 경외를 신화로 표현하면서 세상을 이해했다. 신화는 자연의 에너지를 이야기로 만든 것이고 이야기는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었다.

소크라테스와 공자로 대표되는 고대의 사상가들은 인간에게 눈을 돌렸고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인간이 어떻게 아는가를 깊이 연구해 들어갔다. 그 결과 인간과 인생에 대해 다양한 생각이 펼쳐졌고 자연스럽게 철학으로 발전했다. 이런 경향은 중세를 경험하면서 신중심의 세계관으로 급격히 돌아서게 됐다. 인간 스스로의 생각이 아닌 신의 뜻에 충실한 삶이 중요시되었다. 이런 중세도 자기감정에 대한 자각이 시작되는 르네상스를 통해 균열이 생기고 근대가 시작되었다.

근대의 여명을 상징하는 두 인물이 있다. 프랜시스 베이컨과 르네 데카르트.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말했다. 지식이 곧 힘이 되는 시대가 온 것이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제 인간의 존재 근거는 신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되었다. 흔히들 근대를 합리성과 이성의 시대라고 한다. 합리적 이성을 통해서 자유와 평등이 구현된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믿었던 시대였다. 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잘 작동될 것으로 믿었고, 정치는 이해관계자들의 합리적인 조율을 통해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이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지금 우리는 이런 근대적 사고에 의해 만들어진 사회구조 속에 살고 있다.

불행히도 합리적인 이성만으로는 경제성장을 이루어냈지만 그 뒤에 어둠과

불편한 뒷골목도 만들어냈다. 제국주의와 전체주의, 타자에 대한 배려의 부재,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에 대한 배척이 그런 것들이다. 이는 빈익빈 부익부 문제, 신자유주의 문제, 복지정책의 축소와 생명의 가치에 대한 무시, 끝없는 경쟁으로 이어져 우리시대를 지배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우리는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는 방법, 보다 부유하게 살아가는 기술을 배우며 성장해왔다. 어떻게든 남을 이기고 살아남고 성공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 덕분에 먹고살 수 있는 지식이나 기술은 좀 배웠지만 내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가치 있는 것인지 고민할 기회는 놓치고 말았다. 우리 마음속이 공허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좋은 삶을 살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해 난감하기만 하다.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지금의 대학생들이 자신에게 던져야 할 중요한 질문이 이것이라고 믿는다. 스스로 좋은 삶을 고민할 때 그 길도 찾아지지 때문이다. 세상의 압력에 굴복해서 먹고 사는 것을 우선시한다면 좋은 삶의 기회는 없다. 좋은 삶이란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면서 그 경험들을 충만한 것으로 만들어갈 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닌 세상이 원하는 길을 강권한다. 그것을 자각하고 스스로를 일깨우려는 공부 필요하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인문학이 중요한 이유일 것이다.

## 안상헌

자기개발과 책임기의 전문가

저서

『청춘의 인문학』

『인문학 공부법』

## 뚝!뚝! 연구중이세요?

학문의 전당, 대학에서 '대학연구소'는 끊임 없는 노력과 열정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과 모험적인 설계를 통해서 결과물을 얻고, 이를 통해 사회의 발전이나 실생활에 이용될 만한 것들을 발견하는 곳이다. 우리학교의 연구소에서는 어떠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지 탐방해보자. (편집자주)

## ⑥인증·검사기관 평가지표 개발



## 산업현장 속 안전을 위한 정직한 잣대를 세우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산업재해 현황분석'에 따르면 매년 국내에서 산업재해로 2천 여 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상자는 9만여 명에 달한다. 그 결과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 산재 사망률 3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왜 이렇게 많은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 산업재해의 사고 원인을 살펴보면 넘어짐 19.2%, 끼임 16.0%, 떨어짐 15.0%, 절단·베임·찢림 8.4%, 물체에 맞음 8.2% 순이다. 이러한 사고를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개인의 문제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안전하지

못한 현장, 위험한 기계 사고에 의한 인명피해도 적지 않다. 국내에선 안전 인증기관이 산업 기계·기구의 안전성을 인증하고, 이를 사용하면서 노후되는 기계들의 안전성은 검사기관이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 현장에서 위험기계·기구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인증기관과 검사 기관조차 부실한 검사를 자행하면서 산업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본교 최기흥(기계시스템공학) 교수는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의 지원으로 안전인증·안전검사 기관을 평가할 지표를

개발했다. 그는 "국내의 경우 인증제도는 비교적 잘 갖추어진 상태이지만, 인증기관에 대한 평가는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가 나서서 안전인증·검사기관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제3자인 대학에서 만든 것"이라 설명했다.

서울과학기술대 이근우 교수와 함께 진행한 이 연구 과정은 평가지표를 완성해 최종 보고서 단계를 앞두고 있다. 연구팀은 여러 선진국과 국내 기관들이 지켜야 할 기준(인증기관은 국제기준 ISO/IEC 17065, 검사기관은 국제기준 ISO/IEC 17020)을 토대로

평가지표를 개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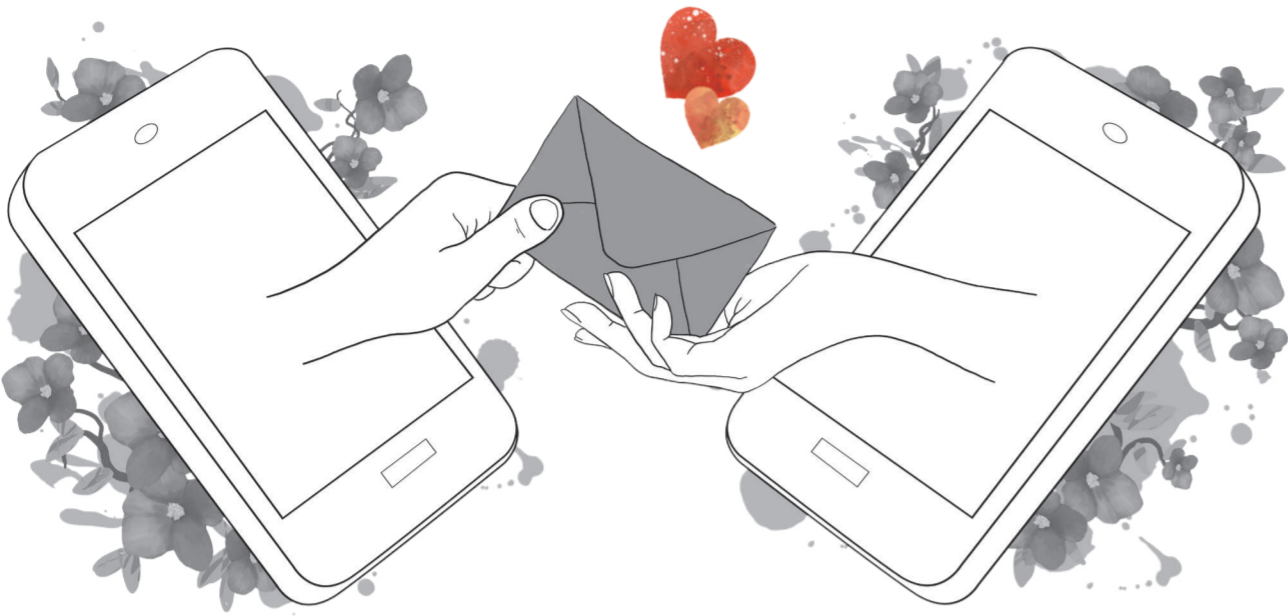
인증·검사기관의 문제에 대해 최 교수는 "국내에는 여러 안전인증·안전검사 기관이 존재한다. 문제는 다수의 기관이 기업을 상대로 경쟁을 하면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전 인증·검사기관들이 고객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 저렴한 비용을 제시하면서 부실한 검사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인증·검사에 있어 부실함뿐만 아니라 유착비리와 같은 공정성의 여부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인증·검사기관이 기업을 유착하여 품질 관리를 위·변조를 하는 비리가 가담하는 것이다. 최 교수는 "세월호 사건의 경우, 선박을 검사하는 기관이 선박을 운영 하는 협회에서 세운 기관인 것이 문제가 되었다. 이는 객관적이지 못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국내 인증·검사기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해 부실한 기관을 가려내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럽의 CE마크, 미국의 UL마크처럼 공평하고 권위 있는 기관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주 목적"이라 전했다.

안전에 대한 사람들의 불신이 높아져만 가는 가운데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을 무시하는 기업들을 평가할 엄격한 잣대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임태미 기자

taem14@hansung.ac.kr



# 소개팅도 셀프로 하는 시대 '소셜데이팅'

## 소셜데이팅 직접 해봤다

언제부터 크리스마스가 연인과 함께 보내야 하는 날이 되었는지, 12월은 연인의 달이라는데 딱 없는 솔로들은 울겨 울도 춤기만 하다. 어쩌다 소개팅이 들어와도 주선자 신경 쓰느라 주는 떡도 못 받아먹는 일이 이제는 익숙하다. 물론 셀프 반찬도 셀프라는데 연애도 셀프로 할 순 없을까. 손 안에 작은 스마트폰만 있다면 주선자 없이도 이성을 소개 받을 수 있다. 바로 '소셜데이팅' 서비스를 통해서다.

'소셜데이팅'은 이성을 소개받고 만나는 과정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미국의 '매치닷컴'을 시초로 이미 해외에서는 소셜데이팅 시장이 상당한 규모로 자리 잡고 있다. 국내에서는 5년 전부터 소셜데이팅이 인기를 끌고 있다. 국내 소셜데이팅 시장에는 130여 개 이상의 업체가 활동하고 있다. 사용자는 약 200만 명 정도이다.

이렇게 업체들이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만 내가 직접 사용하려면 상당히 망설여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소셜데이팅 서비스를 기자가 직접 사용해보고 그 빛과 그림자를 취재해봤다.

매일 정해진 시간마다 울리는 알람. 상대방의 프로필이 도착했다. 사진을 보니 마음에 드는 스타일이다. OK권을 사용해 쪽지를 보냈다. 다행히 상대방도 나의 프로필이 마음에 들었는지 OK를 보낸다. 채팅방이 열리고 그와 대화를 시작한다.

대부분 소셜데이팅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이성을 소개해준다. 이용자는 상대방의 프로필을 보고 마음에 들면 상대방을 선택하면 된다.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나를 선택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양쪽 다 서로를 선택하면 연락처가 전달되거나 채팅방이 열린다. 상대방과 연결해주는 소셜데이팅 어플의 역할이 끝나고, 이제부터 스스로가 인연을 만들어 가면 된다.

매칭방식은 업체마다 조금씩 다르다. 국내에서 가장 이용자가 많은 소셜데이팅 '이음'은 커피 한 잔 가격으로 매일 한 사람을 OK할 수 있다. 2년 동안 솔로였지만 소개팅은 마다하던 A씨. 기자의 권유로 이음을 다운받았다. A씨는 "쉽게 이성과 이야기 나눌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상대방과 서로를 OK하는 게 쉽지 않았다. 한 번 상대방을 선택할 때 마다 비용이 드는 것이 부담스러웠다"고 평가했다. A씨는 비용까지 지불해 호감표시를 시도했지만, 상대방의 수락이 오지 않았다.

지난 11월에 서비스를 런칭한 '텔레파시'는 하루에 4명을 소개해주고 가상의 데이트를 통해 상대방의 성향을 알아볼 수 있다. 여자 이용자에게는 심리테스트 같은 가상의 데이트가 신선하다는 반응이다. 다만 남자들에게 호감표시가 적게 들어오는 점이 아쉬운 점으로 꼽혔다.

'너랑나랑'은 매일 16명의 여성이 소개된다. 경쟁구도로 되어있어 두 사람 중 한 명을 선택해야 한다. 남녀가 번갈아 총 4회를 선택한다. 마지막 단계까지 서로를 선택하면 상대방과의 쪽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 너랑나랑을 사용해본 B씨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도 4단계가 거쳐야 해 연결되기가 어려웠다. 현실의 단점 미팅처럼 재미는 있지만 애프터가 없는 느낌이다"라고 말했다.



## 소셜데이팅 알아보기

- 1 본인인증을 거쳐 회원가입
- 2 나이·성격·취미 등 프로필 작성
- 3 관리자의 심사 거쳐 승인
- 4 매일 정시에 앱으로 상대 프로필 도착
- 5 서로를 선택하면 연락처 교환
- 6 오프라인 만남

**소셜데이팅, 새로운 만남의 창구가 돼**

소셜데이팅 서비스가 인기를 끌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온라인을 통한 만남을 불건전한 것으로 생각하던 사용자들의 인식변화가 가장 큰 이유다. 업체들은 여성 이용자를 확보하기 위해 밝고 건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꼼꼼한 본인인증과 프로필 심사를 통해 사람들의 거부감을 줄여나갔다. 텔레파시의 정제호 대표는 "브랜드의 이미지를 건전하게 만드는 노력과 안전한 서비스를 위한 운영과 관리가 사람들의 신뢰도의 변화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소셜데이팅은 스마트폰과 SNS의 열풍에 힘을 얻었다. 젊은 세대들은 온라인 속에서 자신을 더 잘 표현하는 데 익숙하다. 소셜데이팅이 남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이성을 만날 기회를 얻는 창구가 된 것이다. 이음의 관계자는 "지난 6월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셜데이팅을 이용하는 이유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의 만남'이 1위로 꼽혔다. 지인을 통한 만남이 제한적이라 보니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을 원하는 것"이라 말했다. 제 이상형과 조금도 맞지 않는 이성을 소개해주는 야속한 친구보다, 여러 사람들의 프로필을 보고 자신과 맞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을 선호한다는 점도 한몫했다.

폼폼히 살핀 뒤 카카오톡 아이디를 주고받았다. 그런데 이 남자 메시지로 대화하자마자 성희롱을 하는 것이 아닌가. 놀란 H씨는 상대방을 차단하고 소셜데이팅 어플도 바로 지워버렸다.

소셜데이팅 시장에도 '온라인'의 한계는 있기 마련이다. 각종 부작용들이 발생하면서 사람들은 온라인 만남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 것이다. 소셜데이팅 업체들도 고민이 많다. 일부 업체들이 음성적인 만남을 유도하면서 소셜데이팅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텔레파시 정제호 대표는 "이런 어플들은 본인인증 절차가 없다. 소셜데이팅 어플이 가지는 단점을 극복하려면 본인인증과 프로필 심사를 통해 불순한 목적을 가진 이용자를 최소화해야만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서비스 내의 확실한 본인인증도 오프라인 만남에서의 범죄는 예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용자 본인의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이 업체의 의견이다. 만약 대화중 상대방이 성적인 요구를 유도할 경우 이를 캡처해 관리자에게 보내면 강제이용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또, 과도한 프로필 작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소셜데이팅 어플은 보통 프로필 사진을 2장 이상 올리도록 되어있다. 프로필 사진뿐만 아니라 출신학교, 사는 지역 등 구체적인 정보를 이용자 누구나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몇 어플들은 상호 수락 없는 상대방의 프로필이 공개되지 않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한편 유부남임에도 미혼 행세를 하거나 이미 애인이 있는 경우, 프로필을 과장하는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그럼에도 해볼만한 가치있어**

온라인 만남이 가진 부정적 이미지에 설불리 시작하기 어렵고, 정말 스마트폰으로 정작적인(?) 애인이 생길까 하는 의문이 고개를 든다. 그럼에도 울겨울 짝을 찾기 위해 뛰어난 소셜데이팅, 내 급한 마음처럼 하루 만에 인연이 연결될 거라 생각했던 것과 달리 하루 이틀이 지나도 인연은커녕 내게 호감을 표시하는 사람도 없다. '어플이 잘못했네'라며 삭제버튼을 누르는 그대에게 말하고 싶다. 모든 만남에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소셜데이팅에 경우 매력적인 프로필 작성이 필수다. 또 남자는 여자에 비해 호감표시가 오는 경우가 적으니 본인의 솔직하고 적극적인 어플이 중요하다는 것을 참고하자.

혹자는 말했다. 게임에서 친해진 유저가, 온라인 동호회에서 본 회원이, 길거리에서 말을 건넨 그 낯선 상대가 제 짝이 될지 누가 아느냐고. 소셜데이팅으로 많은 사람들이 연인이 되고, 결혼까지 한다는데 우리도 한번 그 안에서 당당함을 무기로 가깝고도 진지한 만남을 꿈꿔보자.

## 연들♥연들

'연들연들, 연애고민 들어들어오는 한성대 학우들이 연애를 하거나 연애를 하려는 단계에서 겪는 고민들을 해결해주는 코너입니다.'

평소 성격이 게으른 편입니다. 그래서 일을 미룰 때가 종종 있는데, 그렇다고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평소에 일이든 과제든 한 번에 확 해버리는 성격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를 두고 남자친구가 매번 게으르다고 지적을 합니다. 물론 제가 게으른 것이 사실이라는 하지만 가끔은 남자친구의 이런 말에 상처를 받게 됩니다.

얼마 전에는 개인적으로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심적으로 많이 지쳐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남자친구를 볼 때마다 힘들다는 말을 자주했는데요. 그럴 때면 남자친구는 늘 제게 '너보다 더 힘든 사람도 많다. 너무 낙담한 것 아니냐'는 말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굳이 저렇게 제게 말하네요. 이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서 한 번은 싸운 적도 있는데, 그때에도 남자친구는 자기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 않느냐며 오히려 저를 나무랍니다.

저희 커플의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제 친구들은 저보다 더 화를 내며 헤어지라고 성화입니다. 제 남자친구가 제 자존감을 깎아 먹는다면서요.

이런 일로 헤어지기에는 오래 사귀기도 했고 이런 부분만 아니면 괜찮은 남자친구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헤어지는 것만이 답일까요?

## “자존감은 누군가를 통해서 상할 수 있는 감정이 아닙니다.”

**전문가의 조언**

오래 사귀 커플은 왜 처음과 달리 대우가 달라질까요? 처음에는 감정적으로 대하다가, 차츰 이성적으로 대할 때면 여자 입장에서는 자존감이 상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같은 대우를 받는 근본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남자 친구 입장에서는 이제 여자 친구가 어떤 여자인지 알게 되었으니, 거기에 걸맞게 대우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즉 그렇만하니 그렇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자 친구 앞에서 자존감을 세우기 위해서는,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처음 사귀 때 자신의 모습과 현재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어떻게 성장했는지! 만약 과거와 달리 스스로 발전한다면 남자 친구의 대우는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대개 권태기가 오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사귀 때는 몰랐는데, 차츰 상대를 알아갈수록 상대의 가치를 알게 되고, 그럴수록 마음이 식어 버리기 때문에 권태기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좀 더 괜찮은 여자의 모습을 보여준 다음, 남자에게 대우를 바라고, 만약 그래도 고쳐지지 않는다면 그때 헤어짐을 고려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송창민**  
『연애의 신』 『연애 바이블』의 저자이자 연애 컨설턴트  
다들 물어봐 '송창민의 이기적인 연애' 운영 중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lovestudy78



## 다원: 다원이란 '모두가 원하는'이라는 순 우리말로 한성대 학우 모두가 좋아할만한 연극표를 드리는 독자 참여형 이벤트 코너입니다.

이번에 발행되는 497호의 신문내용을 토대로 단답형 문제를 냈으며 정답자에 대해 추천하여 '옥탑방 고양이' 티켓(1인 2매)을 드립니다. 이름/학과/학년/연락처를 기재해 신문사로 보내주세요. (학생) 빌딩중후군을 예방하는 2가지 방법 중 가장 중요한 방법은?

사람) 이번 꿈의 대화의 멘토이자 『여자의 모든 인생은 20대에 결정된다.』에 이어 『남자의 모든 인생은 20대에 결정된다.』를 출간한 베스트셀러 작가는?

지난 496호의 당첨자는 박모란(경영 1) 학생입니다. 당첨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  
2013 인터파크 연간 연극 예매율 1위!  
2012 인터파크 전체 공연 예매율 1위!

연극 하면 할수록 더 공평한, 단 하루 밤의 실수!

# 옥탑방 고양이

대학로 틴틴홀 2010.4.6-OPEN RUN

제작 (주)대학로 | 문의 (주)대학로 | 02-734-8190 | www.tintin.com | 02-734-1550

**여전히 부정적인 이미지 남아있어**

친구의 권유로 재미삼아 소셜데이팅 어플을 설치한 H씨. 자신에게 호감 표시를 한 남성의 프로필을

# 독자의 취재 수첩

독자들이 취재했다.

한성대신문 열혈 독자들이 한성대신문의 일일 기자가 되어 지면을 채웠다. 그들의 새로운 시선과 신선한 필체로 또다른 독자를 사로잡는다.  
(편집자주)

## 학술 소모임 Ctrl+W가 진단한 대학생 스터디 열풍

요즘 누가 혼자 조용히 앉아서 공부하니?

대학가에는 지금 스터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스터디는 '여럿이 모여 함께 같은 내용이나 분야를 공부하는 일'이라는 의미를 가진 신조어다. 요즘 대학생들은 여럿이 함께 모여 토론하고 정보를 나누며 공부한다.

기업분석 스터디, 면접 스터디, 자소서 스터디, 어학 자격증 스터디, 전공서적 강독 스터디, 독서토론 스터디 등 그 종류도 다양하다. 심지어 학교에서 밥 먹는 시간에 짬뽕이 취업 및 학점 관련 정보를 나누는 일명 '밥터디'도 있다.



▲ 학술 소모임 (Ctrl+W)의 모습.

지난해 집코리에서 진행된 '취업 스터디' 관련 설문에서 따르면 설문 응답한 대학생의 55%가 스터디 경험이 있거나 현재 스터디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중 82.6%는 스터디가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 했으니 대학생 중 약 40% 이상이 스터디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취업스터디를 하고 있는 한 학생은 "청년 실업이 나날이 심각해져 어지간한 스펙으로는 취업이 어렵더라"며 "그래서 취업 스터디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 스터디, 장소가 필요하다

도서관이나 열람실은 '정숙'이 기본인 곳이다. 이에 여럿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며 진행되는 스터디 장소로는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스터디를 위한 공간이 마련된 카페나 유료 스터디룸으로 향하곤 한다.

카페는 접근성은 높지만 공간 대여가 쉽지않고 착석 가능 인원과 사용시간에 제한이 있다.

유료 스터디룸은 미리 예약이 가능하고 스터디를 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갖춰 이용이 편리하지만 한 시간에 1인당 1500~3000원의 비용이 들어 대학생으로서의 적지않은 부담이 된다.

본교 학생들 역시 스터디를 할 장소가 부족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학교 측은 학생들의 의견을 수용해 장소확충을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방중 학술 소모임 제도는 그 취지는 좋지만 학생들의 참여율이 학교의 기대에 비해 저조하다. 이는 대학생의 스터디 열풍 현상과 대비되는 것이다.

게다가 신청 소모임들이 대부분 이공계열이라, 인문계열 학생들의 소극적인 모습이 눈에 띈다. 실제로 14년도 방중 학술 소모임에 지원해 선발된 13팀 중 10팀이 공과대였고 인문대와 사과대는 각각 2팀과 1팀뿐이었다.

### 본교의 스터디 지원 프로그램, '방중 학술 소모임'

본교에서는 면학 분위기 조성 및 소모임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05년도부터 '방중 학술 소모임' 제도를 만들었다. 이는 독회 모임, 공모전 모임, 프로젝트 모임 등 다양한 학술적 모임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물론 전공과 관

계를 지원 가능하다. 선발되면 지원금 10만원을 받은 뒤 활동 내용을 평가해 우수할 경우 인센티브를 더 받게 된다. 해당 소모임의 결과물이 과제를 위한 것이거나, 소모임 활동 중도 포기하면 지급한 지원금을 전액 환수한다.

이러한 방중 학술 소모임 제도는 그 취지는 좋지만 학생들의 참여율이 학교의 기대에 비해 저조하다. 이는 대학생의 스터디 열풍 현상과 대비되는 것이다.

게다가 신청 소모임들이 대부분 이공계열이라, 인문계열 학생들의 소극적인 모습이 눈에 띈다. 실제로 14년도 방중 학술 소모임에 지원해 선발된 13팀 중 10팀이 공과대였고 인문대와 사과대는 각각 2팀과 1팀뿐이었다.

### 학계 방중 학술 소모임 지원을 받은 (Ctrl+W)

필자는 교내의 논리적인 글쓰기 스터디 소모임인 (Ctrl+W)의 멤버들이다. (Ctrl+W)는 14년도 4월부터 스터

학술정보관		미래관		우촌관	
2F	4인 테이블 6개	스터디 라운지	4인 테이블 10개 6인 테이블 4개 8인 세미나실 2개	B100호	4인 테이블 5개
3F	8인 세미나실 2개			2층 로비	4인 테이블 4개
4F	12인 세미나실 1개			담구관	
5F	로비 4인 테이블 3개 8인 세미나실 2개	영·라 앞마당	4인 테이블 5개 4인 테이블 5개	정문 야외 하늘정원	6인 테이블 4개 4인 테이블 8개
공개 열람실	6인 테이블 10개 4인 테이블 14개	하늘정원	6인 테이블 6개	총 합계	
6F	8인 세미나실 1개	열람실	4인 테이블 2개 (각 층 1개)	4인 테이블 57개 6인 테이블 16개 세미나실 10개	

한성대학교 스터디 할 수 있는 공간

디를 시작해 본교 학계 방중 학술 소모임 지원을 받았다. 이 제도 덕에 교재 구입과 장소 대여 시 쓰일 비용적 부담을 덜 수 있어 스터디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공모전이나 프로젝트와 달리 '완료'가 없는 인문학 글쓰기 스터디이기에 앞으로 스터디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 방중 학술 소모임 프로그램, 아쉬운 점도 있어

첫째, 홍보가 부족하다. 학기 말에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공지를 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방중 학술 소모임 지원 프로그램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Ctrl+W) 역시 8명의 멤버 중 단 1명만 알고 있어 신청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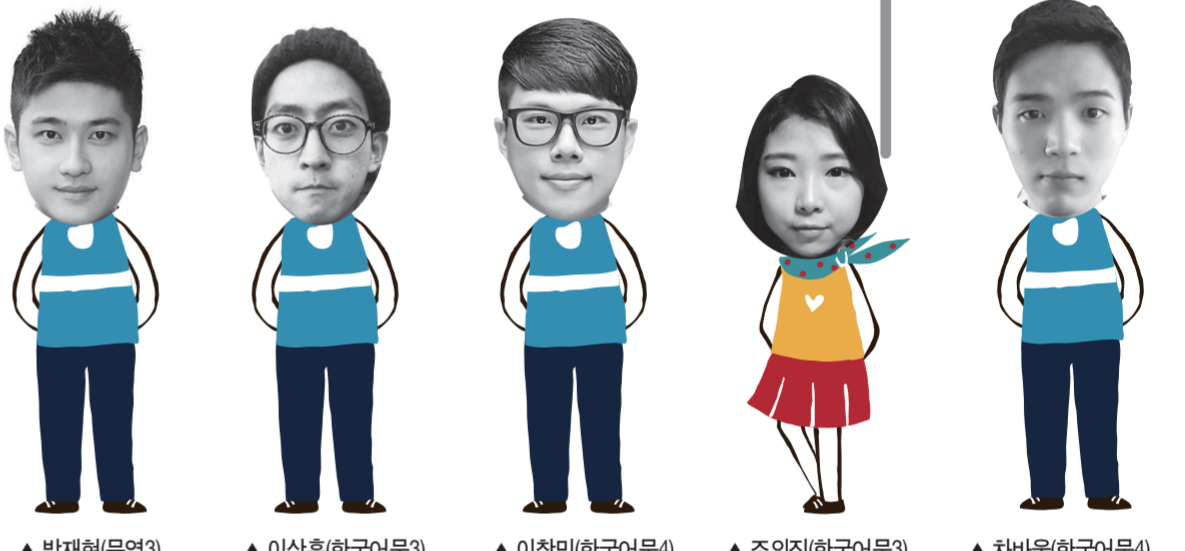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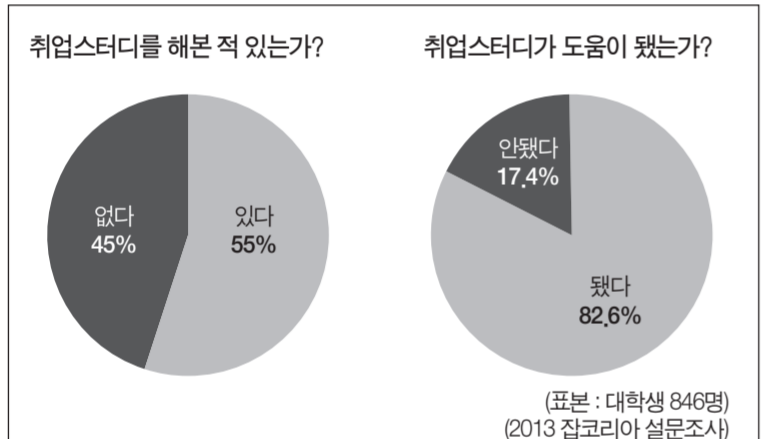
둘째, 보고방식이 까다롭다. 글쓰기 스터디인 (Ctrl+W)의 경우 보고서 제출과 발표 시 완성형 결과물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애를 먹었다. 이는 독서토론 등 인문학 스터디 모두에 해당하는 고충이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보고 방식이 필요하다.

### 대학생 스터디, 단순히 열풍에 그치지 않는 것이 중요

현재 대학생 스터디는 취업 관련 스터디의 비중이 높다. 이에 스터디를 단순히 취업을 위한 수단이라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럴 경우 자기계발이라는 스터디의 고유목적 잃을 수 있다. 이에 대학생들은 무분별하게 스터디 열풍을 따르지 않고 스스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로 여길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의 스터디 열풍은 또 하나의 스펙전쟁에 지나지 않는다.

스터디 열풍은 동전의 양면이다. 대학생이 스스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자기계발을 위해 움직이는 모습은 분명 긍정적이라 말할 수 있다. 다만 지나치게 취업과 스펙을 목적으로 하게 될 경우 스터디는 또 하나의 수업이 되어버릴 수 있다. 스터디 열풍에 끌려가지 않고 스스로 주도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스터디를 하더라도 방향을 확실히 정해두고 임할 필요가 있다.



## 나만의 대학생활?! 한성인을 위한 대학생활 가이드라인!

한 해가 저물어가는 12월, 당신의 대학생활은 안녕하신가?

2011년, 파릇파릇한 새내기가 되어 한성대의 이 첫 저것을 신기해하던 그때, "대학생활을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으로 찬란한 미래를 그려보던 내가 있었다. 그랬었는데 말소사 2015! 벌써 대학생활을 마무리할 시기가 다가오다니! 자연스레 돌아본 지난 대학생활은 한성인으로서 이용해보지 못한 많은 프로그램들에 대한 아쉬움으로 물든다. 매서운 겨울바람으로도도 공공 열려 '그대로 멈춰라'라고 하고 싶은 심정이다.

하지만 이 기사를 읽는 그대들은 아닐 것이다. 이번 한 해를 의미 없이 보냈다 하더라도, 그걸 깨닫고 행동하는 순간 의미 있는 한성인으로서 재 탄생할 것이며, 더욱이 이 기사를 만났다면 그대는 어쩌면 진정한 한성인으로서 각성하게 되는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

어떻게 하면 앞으로의 대학생활을 행복하고 만족하게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 보았다면, 그대가 '한성인'일 동안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궁금했다면, 무엇이 되었든 한성대 대학생활에 도움을 받고 싶다면, 어서 나의 선물을 펼쳐보시라.



▲ 한성 튜터링을 진행중인 모습.

### #1. 대학생활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학업생활, UP!

**학업 컨설팅**: 전문가와 1:1 상담을 통해 자신의 학습 방식을 점검하고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한성 튜터링**: 선·후배 만남을 통한 진목도모와 전공 공부도 도움 받거나 줄 수 있는 스터디그룹

**학술 소모임**: 학교의 지원아래 마음 맞는 선후배, 동기와 같이 원하는 주제를 연구하는 소모임

**English Lounge**: 외국인 교수님들과 함께 즐거운 영어 프로그램(Group Speaking, Open Activity)등을 진행하고 영자문 상담까지

**토의 강좌**: 사교육 없이도 학교 내에서 무료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한성인들만을 위한 토의 강좌

**해외 연수**: 영어·일어·중국어권 대학과 교환학생과 말레이시아·캐나다·대만 대학으로의 단기 어학연수, 미국 대학과 복수학위 프로그램, Disney International College Program 등 폭 넓은 선택

**글로벌 봉사단 '한울', 한성대 해외봉사단**: 해외에 있는 학생들에게 우리의 문화를 전파하고 돕으로 봉사활동까지

**한성멤버서버, 외국인 유학생 멘토링**: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및 한국 생활 지원에 주는 봉사활동

**국제어문학교**: 영어권 교류대학 학생들을 초청해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체험하게 도와주는 봉사활동

**그 외**: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자원봉사, 강남중학교 학습멘토링 등

### #3. 다양한 사람들과의 소통, 나의 소중한 인연!

### #4. 사회에 나가기 전의 준비, 나는 무엇이 될까?

**365 캠퍼스 프로그램**: 우리 학교만의 독특한 취업지원 제도. 방학기간 동안 실무교육과 현장실습, 유망직종 취업지원, 자격증 취득 지원 등의 훈련을 지원

**장단기 인턴십 프로그램**: 노동부 및 중소기업청과 연계해 국내 유수의 기업들과 최소 3주에서 최대 6개월 인턴십이 가능

**취업역량 강화캠프와 취업캠프**: 전공을 고려한 직무분석 특강, 채용 트렌드 분석, 창업 아이템 발굴 등 사회 진출을 위한 한성인 맞춤 캠프

**고시반, 주니어고시반**: 고시를 준비하고 싶은 학생들을 뽑아 동기부여를 위한 장학금과 지도교수의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강화된 학업관리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프로그램

**Hansung Success Frontier**: 특정 주제(전공, 부전공, 관심분야)에 관련된 선진 기관의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팀 구성원이 직접 방문할 국가 및 기관을 조사하여 탐방

**그 외**: 채용대비 입사서류 특강 및 1:1 클리닉, 집단상담 프로그램(진로탐색 및 조직스킬향상), 취업 박람회 등

### #5. '청춘'이라는 이름 하나로, 여행을 떠나자!

**국토 테마 기행단**: 직접 발로 걸으며 찬찬히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여행

**한성인 문화 탐방 기행단**: 세계를 탐방하며 건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

### #6.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를 알아보는 시간!

**학생생활상담실**: 성격유형검사(MBTI), 자아개념, 자아실현 워크샵 등 한성인만을 위한 프로그램

**글쓰기 상담**: 논리적이고 구조적인 사고 능력과 표현 능력 향상, 면대면 상담을 통한 학습자의 글쓰기 고민 해결

**데일 카네기 리더십 프로그램**: 열정적인 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자신감 및 의사소통능력, 스트레스 관리능력 향상을 통해 추후 학습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여기까지가 2014년 올 한 해 동안 진행되었던 주요 프로그램이었다.

대외적으로 잘 이용해도 남부럽지 않은 대학생활이 가능해 보이지 않는가? 이 중 그대에게 필요하다 싶은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그대만의 멋진 대학생활 즐기기를 바란다.

이 밖에도 본교는 학교 홈페이지의 한성공지, 낙산의 매아리를 통해 한성인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홍보하고 있다.

본 기사에는 매년 진행되는 프로그램 위주로 소개했다. 이중 올해 새롭게 진행된 프로그램들도 있으니 참고하시라.

빛나는 그대여, 내가 못다한 하지만 한성인만이 누릴 수 있는 대학생활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란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그대도 후배들에게 이렇게 소중한 선물을 남겨주길 소망한다.



▲ 이현주(정시3)



▲장발머리에 정장을 입고 있는 이재득(산업경영공학과) 교수의 사진이다.



▲ROTC시절 무제행사 때 찍은 조규태(역사문화학부) 교수의 사진이다.



▲친구들과의 여행 중 찍은 문찬(제품디자인전공) 교수의 사진이다.(아래 맨 오른쪽)



▲설악산 수학여행에서 돌아오다 잔디밭에 앉아서 찍은 이재득(산업경영공학과) 교수의 사진이다.



▲독서를 하고 있는 이재득(산업경영공학과) 교수의 사진이다.



▲친구들과의 여행 중 찍은 문찬(제품디자인전공) 교수의 사진이다.(가운데 서있는 분)



▲친구들과의 여행 중 찍은 문찬(제품디자인전공) 교수의 사진이다.(위 오른쪽에서 두 번째)



▲신문을 읽고 있는 장재영(컴퓨터공학과) 교수의 사진이다.

# 청춘이 청춘에게

청춘은 인생에서  
오직 한번밖에  
오지 않는다

- 롱 펠로우

한성대 신문사는 2014학년도 2학기 종강호를 맞이하여 본교의 교수님들의 대학 시절 모습을 소개하는 코너를 기획했습니다. 현재는 강단에 계시는 교수님들도 한 때는 눈부신 청춘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이에 한성인들에게 강의실 안에서 만나오던 교수님들의 젊은 시절 모습을 소개함으로써 스승과 제자간의 공감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동아리 활동 사진, 여행 중에 찍은 사진, 독서를 하는 사진 등을 통해 본 교수님들의 모습은 요즘의 대학생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기획코너에는 이상혁(언어교육원), 장재영(컴퓨터공학과), 이재득(산업경영공학과), 조난숙(교양교직학부), 문찬(제품디자인전공), 최천근(행정학과), 조문석(공공인재학과), 조규태(역사문화학부) 교수님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박경호 수습기자 kyoung516@hansung.ac.kr



▲백령도행 배 위에서 방언조사단과 함께 찍은 이상혁(언어교육원) 교수의 사진이다.(맨 왼쪽 아래)



▲서울대학교 CCC동아리의 회원들과 함께 찍은 조난숙(교양교직학부) 교수의 사진이다.(왼쪽에서 다섯 번째)



▲성당에서 연천으로 답사를 가서 찍은 조문석(공공인재학과) 교수의 사진이다.(맨 왼쪽)



▲경찰대학교 신입생 때 선배들과 찍은 최천근(행정학과) 교수의 사진이다.(가운데)



▲최천근(행정학과) 교수의 늠름한 모습이다.



▲성당에서 연천으로 답사를 가서 찍은 조문석(공공인재학과) 교수의 사진이다.



▲경찰대학교 재학 시절의 최천근(행정학과) 교수의 모습이다.



▲승마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최천근(행정학과) 교수의 사진이다.